

리아호나

표지 이야기:
어버이란 직분 -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도전, 2쪽
대응하는 방법:
너 몰몬이니? 36쪽
영웅을 선택함, 천14쪽





“사랑, 신앙, 훈육, 희생, 인내,
일 등과 같은 수많은
작은 실 가닥들이 짜여져 가족이란
큰 태피스트리가 됩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수많은 사랑의 실 가닥”
2쪽 참조.

리아호나



표지
모델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스미스.



친구들 표지
삽화: 타ਿਆ 물리.



“영웅”, 친14쪽 참조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수많은 사랑의 실 가닥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 8 가족 강화: 동등한 동반자로서
- 10 간증을 함 제이 이 젠슨 장로
- 14 폴리네시아의 진주 리차드 엠 롬니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영원한 가족에 관한 지식을 얻은 것을 기뻐함
- 26 신권의 열쇠 러셀 엠 넬슨 장로
- 34 교리와 성약의 메시지: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로드리고 미러 장로
- 44 후기 성도의 소리
동정심에 감동되어 후안 알도 레오네
헤드라이트 불빛 속의 사슴들 아르린 하우스맨
십일조를 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아나 크리스티나 메리노 리바스
“물론 가입 금지” 익명
- 48 애독자 편지

청소년

- 22 질의 응답: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이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 및 가족 경전 공부를 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요?
- 31 개종 바츨라바 스보보도바
- 36 너 물몬이니? 아나 리 그라니엘라 로페스
- 40 세미나리에 매료되어 아담 시 올슨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용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나는 항상 옳은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마가렛 에스 리퍼스
- 친6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생애에서: 루 진을 위한 기도
- 친8 친구가 친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복음 진 에이 테판 장로
- 친10 노래: 회복된 진리 앨런 엘 존스 이세와 루드비히 반 베토벤
- 친11 훌륭한 선택 줄리 외델
- 친12 나의 복음 표준 서표
- 친14 영웅 김벌리 웹



“세미나리에 매료되어”
40쪽 참조





복사 금지

그림: 다이앤 딘, 스코틀랜드, 스티어링 배코 힐 로드

1898년,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 있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이 건물 위쪽 오른쪽 모퉁이에서 석판을 보았다. 그는 거기에 새겨진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맡은 책임을 잘 수행하라”는 글귀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그는 “그것은 그 날 아침 내게 선교사로서 내가 맡은 책임을 잘 수행하라고 주는 메시지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제일화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엘 라셀 벨라드, 조셀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에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잰슨
고문: 몬티 제이 브러프, 게리 제이 콜먼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리스네호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차드 엠 톨니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클러트 네베카 오운, 수잔 브렛, 새나 버틀러, 라이언 카, 린다 스칼 쿠퍼, 라렌 포터 콘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알 발 존슨,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샬리 제이 오데커, 이럼 시 울슨, 슈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돈 엘 설,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라, 제넷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외델, 킴벌리 펠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엘 기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펬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윌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안슨

통 권: 제475호, 제42권, 제10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5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ward/부파 변경된 주소로 배부(☎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아티어, 헝가리어, 힌디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5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October 2005 No. 10.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가정에서뿐 아니라 교실에서도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분이 리아호나를 사용할 때 이 페이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가 불행하게 죽은 이유에 대해 토론한다. 마지막 단락을 큰소리로 읽는다. 용서가 가져다주는 평화에 대해 간증한다. 가족

“신권의 열쇠”, 26쪽: 가족 구성원 한 명에게 하나의 특권을 허가해 주는 면허증을 준비한다. 그것을 주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면허증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한다. 라셀 엠 넬슨 장로의 의사 면허증이 그에게 준 특권과 책임에 대해 읽는다. 가족 구성원에게 신권의 열쇠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기사의 한 부분을 활용하게 한다. 여러분의 삶이 신권 열쇠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의해 어떻게 축복 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개개인에게 용서를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서 작은 끈 조각들을 준다.
“영웅”, 친14쪽: 가족 구성원들에게 각자가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그 이유를 얘기하도록 부탁한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소녀는 그 음악 스타가 자기의 영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누가 우리의 영웅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한다. 우리가 존경할 사람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성구를 나눈다.(예, 제3니파이 27:27; 모로나이서 7:16~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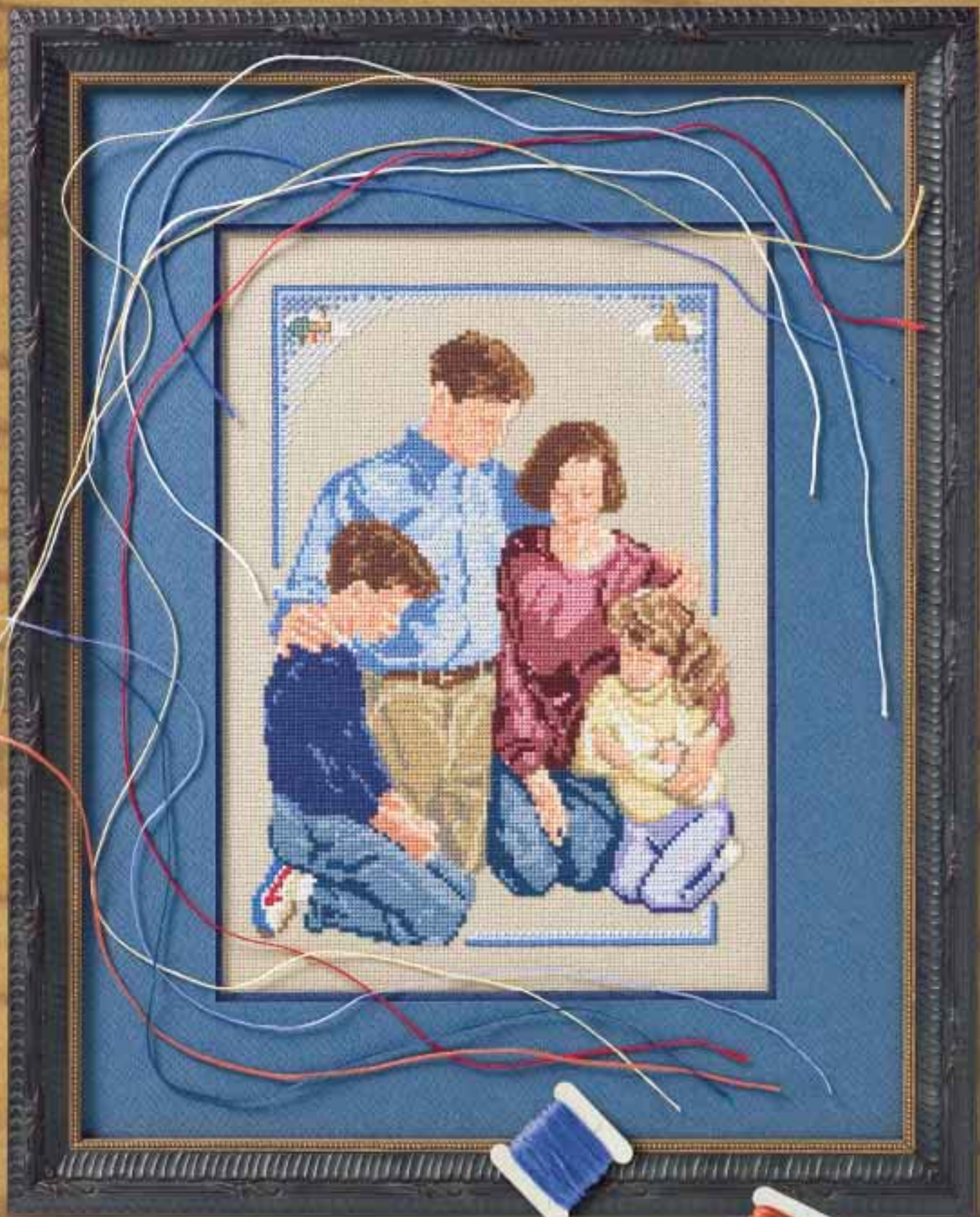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34쪽: 교리와 성약 18편 13~16절을 함께 공부한다. 가족 개개인이 이 구절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얘기하도록 권유한다. 로드리고 미러 장로의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는다. 이 기사의 마지막에 적혀 있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 간증한다.

“너 물몬이니?”, 36쪽: 이 이야기의 첫 여섯 단락을 읽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겠는지를 묻는다. 가족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것 같은지를 묻는다. 교회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토론한다. 이 기사의 상황을 연극으로 재연한다.

“용서”, 친2쪽: 농부의 이야기를 해주고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성전 및 성전 사업, 14, 25
가르침, 1, 2, 10	세미나리, 40
가정 복음 교육, 7, 34	스미스, 조셀, 25, 친10
가정의 밤, 1, 22	신권, 26
가족 역사, 25	십일조, 44
가족, 2, 8, 22, 25	아버이, 2, 8
간증, 10, 31	예수 그리스도, 44, 친4
개종, 31, 34	용서, 친2
경전 공부, 22	우정, 44
교회사, 14	자녀, 2, 8
구원의 계획, 친4	준비, 26
기도, 22, 친6	지도력, 26
동정심, 44	지혜의 말씀, 친8, 친11
모범, 36, 44, 친8, 친14	초등학교, 친4
미디어, 친14	폴리네시아, 14, 40, 친8
방문 교육, 25	표준, 친12, 친14
보호, 44	행복, 친8
사랑, 2	활동화, 34
선교 사업, 34, 36, 친8	회복, 친10
선택의지, 친4	



수많은 사랑의 실가닥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어버이란 직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전입니다. 사실상 어버이란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부모들이 각기 다른 많은 의견을 갖고 있겠지만 모든 정답을 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러합니다.

제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교회에는 참으로 훌륭한 청년 청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이 훌륭한 젊은이들이 훌륭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헌신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가장 성실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리석은 짓을 했을 때 저의 어머니가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나?”라고 말씀하시던 것이 생각납니다.

주님은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¹고 지시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는 것은 훌륭한 목표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부름인 동시에,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1873~1970년)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임”²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위대한 도전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인간의 도전은 없으며 더 큰 기쁨을 안겨 주는 기회도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자녀를 신앙심 깊고, 행복하고, 존경할 만하고 생산적인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갖게 되는 영광입니다.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³라고 간증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은 인생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는 어떤 일보다도 더 많은 예지와 직관적인 이해, 겸손, 의지, 지혜, 영성, 인내력 및 부지런함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특히 명예와 예절의 도덕적인 기초가 우리 주위에서 침해당하고 있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려면, 가치관이 가르쳐져야 하며 규칙과 규범이 있어야 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도덕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가르치도록 지원해 주는 사회는 드뭅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중요한 도덕적인 가치관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도덕을 가볍게 여기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자녀를
신앙심 깊고, 행복하고,
존경할 만하고 생산적인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왼쪽 상하: 린다 에탄; 오른쪽 상하: 부시스 포토그래피

가장 큰 희망

사회 전체가 부패하여 도덕적 정체성을 잃어가고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큰 희망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더욱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주된 교사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들 교사들 중 으뜸은 부모와 가족입니다. 가정은 가장 좋은 환경 하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우리는 가정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주위에 스며드는 해로운 도덕적인 부패에 대해 설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조화, 행복, 평화 및 사랑은 자녀들이 인생의 목표에 도전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내적인 힘을 줄 것입니다. 언젠가,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인인 바바라 부시 여사는 웰즐리 대학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시대와 세월이 변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들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 주어야 하고 자녀들을 껴안아 주어야 하고 자녀들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성공하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은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⁴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희생의 결과로 성실한 부모는 훌륭한 성품을 지니게 되며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비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가족을 결속시키기 위해 엄청난 고난과 싸우며 노력하고 희생하시는 편부모 여러분에게 크나큰 경의를 보냅니다. 그분들의 영웅적인 노력에 우리는 존경을 표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나 아버지의 임무는 가정에 부모가 다 있을 때 훨씬 쉬워집니다. 자녀들은 때때로 부모의 힘과 지혜를 몹시 필요로 합니다.

오래 전에 스탠리 스무트 감독님은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1895~1985년)과 접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볼 회장님은 “가족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스무트 감독님은 “저희는 하루에 두 번 가족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만 평균 하루에 한 번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볼 회장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기도를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가족을 안전하게 구하려면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밤을 하는 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가끔 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도덕적인 힘을 강화하는 데 충분할지 의심스럽습니다. 가족 경전 공부를 이따금씩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처하게 될 도덕 부재의 환경 속에서 견디어 내는 데 필요한 미덕을 충분히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이 아니면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자녀들이 순결, 성실, 정직 및 기본적인 인간의 예절을 배우겠습니까? 이러한 미덕은 교회를 통해서도 물론 강화되겠지만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견고한 것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위험을 피하도록 가르칠 때 “우리는 세상 경험이 많고 세상 일에 현명하기 때문에 너희보다 벼랑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답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의 위선적인 행위는 자녀들을 냉소적으로 만들고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금지시킨 영화를 본다면, 부모로서의 신뢰는 약화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직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정직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덕성스럽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존중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존경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덕성 중에는 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 자신의 부모와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경,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애국심에 대한 존중,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대한 존중, 권세에 대한 존경 등이 포함됩니다. 바울은 자녀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 배우게 하라”⁵고 상기시켰습니다.

적절한 훈육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녀를 적절하게 잘 훈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자녀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모든 자녀는 각기 다르며 독특합니다. 한 자녀에게 통했던 방법이 다른 자녀에게는 통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의 부모 말고 어떤 방법이 그 자녀에게 너무

가혹하거나 너무 관대하다고 판단할 만큼 현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기도으로써 분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확실히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원리는 자녀를 훈육할 때 처벌보다는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리검 영 회장(1801~1877)은 “만약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을 징벌하도록 요청 받는다면 결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징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⁶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와 훈육은 자녀 양육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사회가 그들을 훈육할 것입니다. 훈육이 없으면 자녀들은 가정이나 사회의 규칙 중 어느 것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훈육의 기본적인 목적은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데 실패하거나 가정에서 순종심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사회가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친절함 마음과 동정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순종심을 가르치는 것이, 가정이 그러한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사회가 지우는 잔인하고 매정한 징계에 자녀를 무심히 내버려두는 것보다 낫습니다.”⁷

가르칠 책임

훈육을 받고 책임감을 지닌 자녀로 가르치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자녀에게 일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장한 사람은 “저는 일을 좋아합니다. 저는 일에 매혹되어 몇 시간이고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⁸라고 말한 사람과 같게 됩니다. 일의 원리를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그리고 여러 형제들과 함께 처음으로 일하게 되었을 때,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종종 방해가 되었지만 그것은 재미롭고 매우 귀중한 교훈을 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책임감과 독립심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리하이의 가르침처럼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⁹ 않는 사람이 되도록 부모들은 모범을 보이고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대한 원예가인 루터 버뱅크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울이는 관심보다 더 큰 관심을 식물에게 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잡초가 우거진 정글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¹⁰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도 진보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도덕적인 선택의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지로 자녀들이 이기심, 낭비, 방종 또는 자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선택의지를 자주 표현합니다.

성실하고 다정하고 염려와 관심을 기울이며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의의 원리대로 살아온 부모는 일부 자녀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좋은 부모임을

훈 육을 받고
책임감을 지닌
자녀로
가르치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자녀에게 일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일의 원리를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
자신입니다.



경 전은
 자녀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와
 함께 “회개의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알고 위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가르침을 받고 배울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좋은 행실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에 항상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나 욥의 인내까지 요구하는 자녀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와 물질은 부모에게는 종종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일부 자녀들은 어떤 점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해줄 때까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부모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1926~2004년)은 “자녀를 위해 너무 많이 해주는 사람은 곧 그들이 자녀들을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도 많은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 왔기 때문에 거의 망가지게 됩니다.”¹¹라고 말씀했습니다. 애써서 벌지 않고 얻게 된 물질에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또래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져 인기를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기 자녀가 또래 친구들이

하는 일을 저지르려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분명 아이러니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약, 알코올, 부도덕한 행위를 피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살아오면서 가르쳐 온 훌륭한 가치관을 완전하게 받아들인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그들 또래 친구들의 행동이나 알코올, 부도덕한 행위, 간음, 부정직, 기타 사악한 것들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송 매체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이 강한 젊은이들은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지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받았”¹²던 자이며 “그들의 어머니의 말을 내게 들려주었나니,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¹³라고 한 힐라맨의 이친 청년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신앙

부모님의 가르침과 가치관을 자녀들의 삶에 확고하게 심어 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자녀들의 영혼에 심어질 때 그들은 내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르쳐야 할 모든 중요한 것들 중에서 부모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경전은 자녀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와 함께 “회개의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¹⁴ 이러한 진리를 가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학교나 정부 또는 사회가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교회 프로그램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순간이 언제나 대단하거나 극적이거나 강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주님께에서 배웠습니다. 어느 작가는 구주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완성된 아름다움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는 아름다운 이야기 ... 젊은 관원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든 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야망을 알리신 이야기 ...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 이야기 ...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춥고 지치고 실망한 제자들이 돌아올 때 그들을 위해 불을 지펴 생선을 구워 주시며 제자들이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하신 이야기 등, 거의 두드러지지 않는 그저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모든 것들은 매우 구체적이고도 작은 것과 관련된 사소한 것들에 깊은 염려를 보이시는 [그리스도]의 관심사에 나타난 진정한 본질과 가치를 우리에게 매우 쉽게 이해시켜 줍니다.”¹⁵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신앙, 훈육, 희생, 인내, 일 등과 같은 수많은 실 가닥들이 짜여져 가족이란 큰 태피스트리(색색의 실로 수놓은 실내 장식용 비단)가 됩니다.

부모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위대한 영적인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자기들의 성약을 훌륭하게 지킨 그들의 용감한 조상들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들이 기억하는 성약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자녀들은 이러한 위대한 성약과 약속의 상속자가 되며 그 혜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약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¹⁶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하는 존경스런 부모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 회원들 가운데 충실한 부모들이 지키는 성약을 그분께서 특별히 영화롭게 해주시며 성약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빕니다. ■

주

1. 교리와 성약 93:40.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2003년), 154쪽.
3. 요한3서 1:4.
4. *워싱턴 포스트*, 1990년 6월 2일, “부서 여사의 연설문”, 섹션 C, 4쪽.
5. 디모데전서 5:4.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년), 219쪽.
7.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소책자), 3쪽.
8. 제롬 클레프카 제롬, *국제 사상 사전*(1969년), 782쪽.
9. 니파이후서 2:26.
10. *앨버트 합바드의 스크램블*(1923년), 227쪽.
11. “The Man of Christ”, *앤서인*, 1975년 5월호, 101쪽.
12. 앨마서 56:47.
13. 앨마서 56:48.
14. 교리와 성약 68:25.
15. 찰스 헨리 파커스트, *금으로 된 앞*(1938년), 177쪽.
16. 제3니파이 20:25~26 참조; 울슨 에프 휘트니, *대회 보고*, 1929년 4월, 110~111쪽.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가족들에게 성소란 위험과 고통에서 보호해 주는 장소라고 말한다. 각 사람에게 성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림으로 그려보게 한다. 무엇을 그렸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성소가 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한다. “가장 큰 희망”이란 제목 다음의 첫번째 단락을 큰 소리로 읽는다. 어떻게 우리 집이 성소가 될 수 있는가?

2. 이 메시지의 첫 문장을 큰 소리로 읽는다. 그런 다음, 파우스트 회장이 아버지의 몇 가지 목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얘기한다. 가족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이 목표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 제안들을 나누게 한다. 다음 달에 가족이 파우스트 회장의 어떤 권고를 실행할 수 있겠는가?

3. “가르칠 책임” 및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신앙” 항목을 읽고, 파우스트 회장께서 자녀들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의 목록을 만든다. 이 주제 중 한두 가지를 선정해서 토론한다. 성구들을 사용해 토론할 수 있다.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축복에 대해 간증한다.



가족 강화

동등한 동반자로서

여러분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연구하고 활용하도록
통찰의 기회를 주는 연재 기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¹

다스리고 부양하고 보호함

아버지는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다스린다는 것은 남자가 집권을 하거나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뜻이 아니다. 구세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신하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고 가르치셨다.



구세주께서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태복음 20:25~27 참조)라고 주의를 주셨다. 다스린다는 것은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에베소서 5:25)라고 가르쳤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1899~1994년)은 “형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족을 영적으로 인도할 때 따라야 할 본보기가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부모의 책임을 나누고 비이기적인 희생 정신으로 서로 도와야 한다.

되십니다. 특별히 이것은 여러분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²라고 말씀했다.

주님은 “자신의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부양할지이다. 그리하면 그는 결단코 자기의 면류관을 잃지 아니 하리니”(교리와 성약 75:28)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종종 가족 부양이 아버지의 자발적인 의지와 충분한 교육 기회에 달려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고 적당한 일자리를 얻고 생필품을 마련하는 것은 높은 생활 수준을 위해 많은 시간을 일하라는 뜻이 아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1895~1985년)은 일부 가장들이 생필품과 동떨어진 우상이 되는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랑과 의로움으로 가족을 다스리는 일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³

가족을 보호할 책임에는 아버지가 제공해야 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은신처와 안전 그 이상의 것이 들어 있다.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1907~1995년)은 “의로운 아버지는 자녀들의 사회적, 교육적, 영적인 활동과 책임에 있어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 자녀들을 훌륭하게 보호해 줍니다.”⁴라고 가르쳤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매체라든지, 함께 시간을 보낼 친구들을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

자녀들을 양육함

1942년에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일에 자신을 헌납하여, 첫째 지체를 지킨 자녀들의 육체와 정신과 영을 기르고 돌보며 양육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거룩한 부름입니다. ... 그들이 두 번째 지체를 지키도록 인도하는 것이 어머니가 할 일입니다. ...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신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에 의한 가장 높고 거룩한 봉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 거룩한 부름과 봉사를 존중하는 여성들을 훗날 천사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게 합니다.”⁵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속임수는 가정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업신여기게 하는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근본을 흔들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 피임에 빠져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어머니의 역할이 경시되고, 여성이 천하게 여겨지며, 아내와 어머니의 신성한 역할이 조롱을 받는 세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⁶라고 주의를 주었다.

선지자들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는 어머니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가족의 필요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여성들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일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좋은 집, 좋은 차, 다른 사치품을 사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길 바랍니다.”⁷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움

어머니는 일차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아버지는 다스리고, 부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들은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진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부모의 책임을 나누고 비이기적인 희생 정신으로 서로 도와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족 안의 서로 다른 중요한 책임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남녀 간의 어떤 영원한 특성의 차이점을 말해 준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의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⁸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타고난 차이점과 독특한 책임은 부부가 하나가 되고, 서로의 힘과 은사를 이행하고, 영원한 가족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2. “이스라엘의 가장들에게”,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53쪽.
3. “우리가 섬기는 우상”,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1~4쪽 참조.
4.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51쪽
5. 대회 보고, 1942년 10월, 12~13쪽.
6.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따라 생활함”,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74~75쪽.
7. “교회의 여성들”, *성도의 빛*, 1977년 1월호, 69쪽.
8.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간증을 함



제이 이 젠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는 순수한 간증을 선포할 때 신성한 권능이 따른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간증을 하는 권능에 대해 더욱더 큰 감사를 느낍니다. 교회사의 기사 가운데서도 순수한 간증으로 감화 받았던 브리검 영 회장(1801~1877년)의 다음 말씀보다 더 큰 영향을 남긴 기사는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재능과 재치와 지혜와 세련을 갖춘 어떤 사람이 물몬경을 가지고 세계 와서 세상적인 가장 멋진 말투로 그의 학문과 세상적인 지혜에 의해 물몬경의 참됨을 증거했다면 세계는 그것이 연기처럼 피었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 앞에서 말할 만한 웅변술도, 재능도 없이 단지 ‘물몬경은 참되며,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선지자임을 성신의 권능으로 압니다.’ 라는 말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신이 저의 이해와 빛과 영광과 불멸을 제 앞에 밝게 나타내 보여 주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¹

경전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사용하여 간증이 무엇인지, 간증을 어떻게 지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간증은 이런 것임

간증이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성신의 권능의 힘을 얻어 선포하는 진리를 아는 것 또는 확신하는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성신]으로 아니하시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린도전서 12:3)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오직 영의 권능에 의해서만 알려지기 때문에 그것들은 영으로 선포되어야 하며, 그것이 곧 간증입니다.

간증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간증을 지닌다고 할 때는 흔히 대명사 *나와 함께* 시작합니다.(부모나 선교사나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증은 알다, 증거하다, 믿는다, 증명하다, 선언하다, 단언하다, 입증하다, 증언하다 등의 힘 있는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습니다. 흔히 간증은 “우리는 귀 기울였고, 우리는 바라보았으며 우리는 찬탄하였다.”(조셉 스미스-역사 1:71 주)와 같은, 여러분이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믿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간증은 짧고, 정확하고, 간결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간증에 대해 세계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선교부 임지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요한 만큼 발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선교부의 영성을 높이기 위해 연속적인

맨 위에서부터: 그림: 앤디스, 나훔은 길을 준비하라 © 퍼시픽 출판사, 복서 금지; 그림: 데이비드 린데리, 요령 중에, 복서 금지; 그림: 시몬 투이, 불과 진리, 엘투스 파인 아트, 에메랄드 포크의 아기 케제, 유다 후, 복서 금지



지역(zone) 대회를 열었습니다. 선교 사업의 방법에 대한 계획 지침보다 간증 모임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대회를 할 때 겸손한 장로 한 명의 간증에서 저는 문제의 답을 찾았습니다. 이 신임 장로가 떨면서 나는 간결한 간증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채 일 분도 안 되는 동안 서 있었지만 저는 그의 간증으로부터 놓치고 있던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선교사들로부터 들었던 간증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온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훌륭한 동반자와 일합니다. 저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까호호를 하고 있었는데 … 그러고는 선교사는 경험을 얘기하곤 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저는 선교사로 나오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하고 간증을 끝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장로는 뭔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래 서 있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는 간단히, 그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재빨리 다음과 같이 말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살아 계심을 압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압니다. 저는 교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간증이었습니다. 그것은 경험도 아니었고 감사의 표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고 증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장로들이 ‘나는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 장로는 단 몇 마디로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자신의 간증을 증명하듯이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 후, 저는 선교부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간증을 가졌음을 시인하면서 이야기를 전하고 감사를 표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증명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²

제일회장단은 간증을 할 때 간결함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금식 간증 모임에서 간증을 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그렇게 할 기회를 갖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감독단은 모든 사람이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 및 회복에 대한 간결하고 진심 어린 간증을 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울 것을 권고 받습니다.”³

간증이 아닌 것

때때로 우리는 어떤 원리에 대해 아닌 것을 알아봄으로써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간증이 다음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간증은 권고가 아닙니다. 금식 간증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충고하거나 심지어 회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권세를 침해하고 있으며, 종종 다른 사람의 기본을 상하게 하며 모임의 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간증은 경험이 아닙니다. 경험일지라도 간결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야 합니다.

* 간혹 우리의 간증에 사랑의 표현이 적절히 들어가기도 하지만 간증은 사랑이나 감사의 표시가 아닙니다.

* 공개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 어떤 사람이 경전을 인용해서 그에 대해 증거할 수 있지만 간증은 어떤 교리에 대한 설교나 말씀이 아닙니다.

*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에 대한 긴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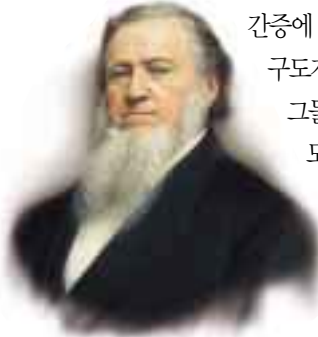
* 단순히 “나는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간증을 가지고 있는 교리, 진리 및 원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표현이 바람직합니다.

공과 및 말씀에서 간증을 함

공과를 가르치거나 말씀을 한 후에는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간증으로 메시지를 끝내야 합니다. 전임 선교사들은 종종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각각의 주요 원리에 따른 짧고 간결한 간증을 하고 가르친 주요 원리에 대한 요약된 간증으로 끝을 맺습니다.

저는 공과 교실이나 설교단에서 공과나 말씀 중간 중간에 너무 잦은 간증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줍니다. 회원들은 너무 잦은 간증에 영으로 열심히 귀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구도자들은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이 간증을 법정에서 하는 증언으로 인식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성스러운 것들을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 간증의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위에서 오는 것은 성스러우며 신중히 그리고 영이 권하는 대로 말해야 함을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63:64)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브리검 영은 이렇게 말했다.

“... 웅변술도, 재능도 없이

단지 ‘물몬경이 참되며 조셉 간증의 실례

스미스가 주님의 선지자임을

성신의 권능으로

입니다.’라는 말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성신이 저의 이해와 빛과

영광과 불멸을 제 앞에 밝게

나타내 보여 주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순수한 간증의 수많은 실례를 경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마는 그의 백성들에게 순수한 간증을 지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엘마서 4:19 참조) 그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엘마서 5:45~46 참조) 말한 다음 그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순수한 간증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내가 장차 올 일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할 것은 다 참된 줄을 내가 스스로 아노라. 이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아노라. 참으로 그는 아들이시요, 아버지의 독생자시요, 은혜와 자비와 진리가 충만하시도다. 보라, 세상의 죄, 참으로

자기의 이름을 굳게 믿는 각 사람의 죄를 제하러 오시는 이가 그이시니라.”(엘마서 5:48)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영광의 세 단계를 시현으로 본 것에 대한 기사에도 순수한 간증이 강력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교리와 성약 76:22~24)

값진 진주에 있는 조셉 스미스—역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물품 번호. 36081, 32667 320)이라는 제목의 선교 사업을 위한 소책자로 발간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 조셉 스미스는 단순하고 솔직하게 “나는 시현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으며 감히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과 정죄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조셉 스미스—역사 1:25)

우리는 침례 요한이 순수한 간증을 하면서 증언한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또 나 요한은 증언하거니와, 내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그가 오셔서 육체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느니라.

“또 나 요한이 증언하노니,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성신이 비둘기 모양으로 그의 위에 내려와서 그의 위에 앉으며 하늘에서 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하시더라

“또 나 요한이 증언하노니, 그는 아버지의 영광의 충만함을 받으셨고,”(교리와 성약 93:11, 15~16)

어떤 경전에서는 아버지, 또는 아들이 간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니파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 그러하도다,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이 참되고



신실하도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니파이후서 31:15)라고 간증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주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의 번역에 대해 “또 그가 그 책 곧 내가 그에게 명한 그 부분을 번역하였으니, 너희 주요 너희 하나님이 사심 같이 그것은 참되도다.”(교리와 성약 17:6)라고 간증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에 대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니라.”(교리와 성약 110:4)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순수한 간증의 권능에 대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자신의 간증이 경전과 후일의 선지자들이 가르친 정확한 원리와 일치되게 하기 위한 검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수한 간증을 선포할 때 신성한 권능이 따른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67쪽 참조.
2. Teach Ye Diligently, 개정판(1991년), 323~324쪽.
3. 엠 리셀 벨라드, “순수한 간증”, 리아호나, 2004년 40~43쪽.

교 사들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간증으로 공과를 끝내야
합니다.

폴리네시아의 진주

폴리네시아 제도하면 떠올리게 되는 진주처럼,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있는 후기 성도의
신앙은 겹겹이 자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찬란하고 아름다워지고 있다.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진주는 인내의 산물이다. 진주는 겹겹이 자라 시간이
흐를수록 광채를 더한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회복된 복음에 대한 신앙 또한 그런 식으로 성장해
왔다. 그 성장은 1844년, 최초의 선교사들이 도착하면서
시작되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며 희망과 의미를 주어 왔다.
오늘날 후기 성도들은 79개의 집회소에 20,000명의 회원으로
인구의 8퍼센트를 점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를 그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광채는 진주처럼 은은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빛을
반사할 때는 참으로 눈부시다. 여기에서 이들 몇몇 성도들을 만나
보았다.

투부아이: 시작된 곳

투부아이 섬 끝의 도로를 막 벗어난 곳에서 로니 하레바야와
그의 아내 산드리네가 조그만 비석 주위를 정리하고 있다. 그

비석은 타히티 남쪽으로 700킬로미터 떨어진 이 섬을 최초로
방문한 후기 성도 선교사 에디슨 프랫 장로를 기념하기 위해
헌정된 것이다. 에디슨 프랫은 미국의 뉴햄프셔에서 성장했지만
19세에 바다 사람이 되었다. 그는 현재 하와이 제도로 알려진
곳으로 여행을 하고 태평양, 대서양, 카리브해, 지중해를 향해한
뒤, 결혼하여 뉴욕에 정착했다. 그와 그의 아내는 1838년에
교회에 들어와 1841년경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성도들과
합류했다. 1843년 5월에 에디슨 프랫은 태평양에서 선교 사업의
시작을 돕도록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서 부름을 받았다. 1844년
4월 30일 그와 다른 두 장로, 노아 로저스와 벤자민 그로우드가
투부아이에 도착했다.

섬 주민들은 선교사가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리하여
프랫 장로가 남게 되었다. 그는 타히티어를 배우며 전도를
시작했다. 최초의 개종자는 그의 미국인 통역사였다. 그 섬에 있던
일곱 명의 뱃사람 중에서 여섯 명이 또한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그러다가 후기 성도 개척자들이 유타에 도착하기 삼 년 전인
1844년 7월 22일 최초의 폴리네시아인 개종자가 침례를
받았다. 1845년 2월경, 200명의 투부아이 주민 중에서 60명이
교회에 들어왔다. 이러한 시작과 다른 섬들에서의 로저스 장로와
그로우드 장로의 선교 사업을 통해 현재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전역으로 교회가 확산되었다.

현재 투부아이에는 5개 지부에 593명의 회원이 있는데, 로니
하레바이는 투부아이 오스트랄 지방부의 회장이다. 상당수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전역에서 후기 성도들은 1844년, 이곳에서 시작된 유산 위에 발전하고 있다. 위: 타카로아의 테라 테마하가 자매가 수공예품을 보여 주고 있다. 라이아테아 섬의 헤이아나 테리아피아, 게리 모우 탐, 파리 레 브로넥(위), 테이호타아타 가족(왼쪽)은 그들이 강하게 되는 데 복음이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아래: 투부아이에서 산드린과 로니 하레바야가 에디슨 프랫 장로의 오래된 무덤을 돌보고 있다.

회원이 그의 친척이며, 하레바야 회장은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곳의 뿌리 깊은 유산과 역사는 바로 교회와 가족에 대한 큰 사랑입니다.”

“투부아이 사람들은 대부분 물질적으로 많이





초대했고, 조금씩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두 사람은 결혼해서 투부아이로 이사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마후 지부의 회장인 루시엔 호프만 형제는 말한다. “여기서는 나무에서 열매를, 땅에서는 채소를 얻을 수 있고, 원하면 어디에서든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궁핍한 사람을 도와 달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하면 그들은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부모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 투부아이에 살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레바아 회장은 말한다. “가족이 함께 있기에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실제로 옆 집에 친형제 한 사람이 살고 있고 그 건너 집에는 또 다른 친형제가 살고, 부친은 그의 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투부아이에는 하레바아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이 같아 생기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하레바아 회장을 로니 회장이라고 부른다.

투부아이에 있는 세 개의 집회소 가운데 하나인 마후 예배당 앞에서 산드린은 애디스 프랫을 기리는 또다른 기념물을 가리킨다. “160년이 지난 후에도 교회가 이곳에서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알면 프랫 장로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렇다. 교회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가장 북쪽 지방인 마르키즈 제도에서 태어난 조헨 보노는 최근의 개종자들 중 한 명이다. 비록 험난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는 투부아이에서 마르키즈로 이사를 온 한 학교 교사로 인해 회복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마이미티 선생님이 제게 참된 교회에 관해 말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녀는 제게 물몬경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저는 제 생활에서 조금씩 나쁜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교회로

“장인께서 저를 선교 전시회에 초대하셨는데 저는 그곳에서 어떤 강력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조헨은 설명한다. “제 마음은 진리를 알고 싶다는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에 관해 진지하게 기도했고, 주님께서 그를 통해 교회를 회복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헨은 곧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현재 조헨과 마이미티는 타히티 파페에테 성전에서 인봉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삶에 성전의 빛을 가져오는 것은 희미한 전등을 가장 밝은 태양빛과 바꾸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회복된 복음을 배우기 위해 조헨에게는 한 겹의 신앙을 쌓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결혼을 하고 투부아이로 이사를 와서 교회에 들어왔다. 이제 성전에 감으로써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진주에 또다른 한 겹을 더해 줄 것이다.

라이아테아: 평안의 안식처

스물세 살의 스펜서 모로나이 테우이아우는 선교사 부름장을 받았을 때,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라이아테아 섬 출신의 이 젊은이는 치과 치료를 하면서 4년을 기다린 끝에 생일에 부름장을 받은 것이다. 그는 편지에 있는 “회복된 복음의 전도자”, “진리의 옹호자요, 유능한 사자”, “구주의 사절”이라는 구절을 소리 내어 읽고 생각하던 일을 기억한다. “약점을 갖고 있기에 저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늘 해 오던 일이었다. 모로나이는 교회에서 성장했다. 그는 여섯 자녀 중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3번째 자녀이며,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로 봉사하는 꿈”을 지녔다고

회상한다. 그는 4년 동안 세미나리에서 선교사 성구를 암기하고 선교 사업에 관한 귀환 선교사의 간증에 귀 기울이던 일을 기억한다. 그러나 또한 치아 검사, 치아 교정, 교정기를 착용했던 시절도 기억하고 있다.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가족의 격려와 자신의 인내를 통해 그는 소망을 이어나갔다.



맨위: 타우미하우 가족은 타히티에서 교회에 들어왔다. 오른쪽 위: 보석 세공사 조헨 보노(아내 마이미티와 함께 있음)는 투부아이에서 교회에 들어왔다.



위: 현재 타히티의 스테이크 회장인 이오수아 브라더스는 1968년에 모로레아에서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교회가 모든 섬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아 왔다. 아래: 타카로아에서 라니테아와 베히나 테이호아리이, 바이나티 날랜드는 자라나는 세대에 속한다.

지금 그는 타히티 파페에테 선교부에서 충실하게 봉사하고 있다.

모로나이, 그리고 그와 같은 다른 젊은이들에게, 라이아테아의 교회는 힘을 얻는 안식처이다. 아베라 와드에 다니는 후기 성도 3세대로 열여섯 살의 게리 모우 탐은 이렇게 설명한다. “이곳의 우리는 바깥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과 가까이하고, 함께 경전을 읽고, 가정의 밤을 가지라고 상기시켜 주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발전해 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사업의 한 부분이 되기로 선택했음을 압니다.”

게리의 친구로 열네 살 된 파리 레 브로벡도 이에 동의한다. 그는 세상에서 안전하도록 해주는 두 가지 것, 즉 세미나리와 기도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세미나리는 매일 아침에 영적인 힘을 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신앙으로 기도할 때 기도는 힘을 줍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의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은 아주 강력하여 2004~2005학년도에는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에 각각 740명과 524명의 학생이 등록했다.

또 하나의 힘의

근원은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주는 회원들의 모범이다. 그런 모범은 애드리언과 그레타 테이호타아타와 그 자녀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비록 그들은 오랫동안 종교를 갖지 못했지만 “우리는 변화하기로 결심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했습니다.”라고 테이호타아타 자매는 말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들이 그들을 우투로아 와드에서 있었던 일반 공개 모임에 초대했다. “우리는 일요일에 다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테이호타아타 형제는 회상한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가르치고, 공과 교실로 가고,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금식 주일에 “간중 모임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전에 결코 가져 보지 못한 평화로운 어떤 것을 느꼈습니다. 성신이었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야.’라고 우리는





오른쪽: 공예품으로 유명한 이곳에서 성전은 가장 찬란한 보석으로 존중되고 있다. 반대쪽 맨위: 타히티에서 티아티아 테이오 축복사와 아내 이미하아 자매는 성전의 영향을 느낀다. 집사인 페레이타이와 장필립 맥그레비도 마찬가지이다. 아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국가가 라이아테아와 스펜서 모로나이 테우이아우 머리 위로 휘날리고 있다.

말했습니다.”라고 테이호타아타 자매는 말한다. 가족은 선교사들과 만나 계속 배웠다. 비록 장남이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테이호타아타 형제와 자매, 그리고 다섯 자녀가 1998년에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그들은 그 이후로 계명을 지키고, 경전을 공부하고, 성전에 갔다. “간증은 강화되었으며 이렇게 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도움을 주었던 회원들의 모범을 이어 받았다.”라고 테이호타아타 자매는 말한다.

이 날 또 한 명의 회원이 스테이크 센터에 있었는데, 그는 1956년에 침례를 받았다. “그 당시 라이아테아에서 교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 다. 회원들이 많지 않았고 모임을 작은 집에서 가졌는데, 방 하나는 예배당이었고 다른 한 방은 선교사 숙소였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교회는 성장했습니다.”라고 해리엇 브로디엔 테로오아테이는 말한다. 그곳의 교회는 마치 진주처럼 성장했다.

타히티: 힘의 중심

교회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아는 한 가지 방법은 타히티 파페에테에 있는 공보 평의회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최근의 한 모임에서 그들은 의미 깊었던 몇 가지 사건을 회고했다.

- 2004년 10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교회는 160주년을 기념했다. 행사에는 (1) 교회에 관한 공개 전시회, (2) 무용, 노래, 합창, 멀티미디어



발표를 포함하여 경기장에서 대규모 행사, (3) 대나무 장대로 바나나 율기기와 같은 전통 경기를 포함한 운동의 날, (4) 50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음악뿐 아니라 교회 및 정부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는 노년의 모임이 포함되었다. 신문과 전국적인 텔레비전 방송에서 많은 활동을 다루었다.

• 교회 역원들이 정부 관리들을 여러 차례 예방했으며 많은 후기 성도들이 현재 국회에서 일하고 있다. 정부는 교회가 가져다준 유익, 특히 가족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일에서의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 2003년 7월에 자크 시락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400명으로 구성된 후기 성도 합창단이 30,000명의 청중 앞에서 공연을 했다. 이 행사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뿐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방송되었다. 합창단이 “내 구주 살아 계시다”(찬송가, 68장)와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인”(찬송가, 74장)을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 타히티 파페에테 성전은 2003년 10월에 건립 20주년을 기념했다.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타히티 파에아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성전 사업을 수행하여, 엔다우먼트를 받은 모든 회원들이 최소한 한 번의 의식을 받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교회는 장년에 접어들었습니다.”라고 교회의 전국 공보 책임자인 마라마 타라티 형제는 말한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전역에서 교회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타히티에서 교회는 아름다운 집회소와 충실한 성도로 가득 찬 모임들과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찬란한 보석 같은, 수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독보적 건물인 성전을 갖고 있다.

성전의 빛은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비치고 있다. “교회 회원이 되기 전에 저는 죽음 이후에 제 삶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마르구에리테 테리이노호푸아는 말한다. 그녀의 가족은 어느 한 가족이 그들을 찾으려고 기도한 결과 교회를 알게 되었다. 타히티 파에아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현재 제1보좌로 있는 에르네스트 몬트로세 형제는 그 당시에 헤이리 와드의 감독이었다. 선교사들이 회원들에게 구도자를 찾기 위해 기도할 것을 권유했을 때, “저는 우리 가족이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감이 찾아왔다. 몬트로세 감독은 같이 일하는 동료인 다니엘손 테리이노호푸아에게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가정의 밤에 가족을 데리고 오라고 권유했다.

“이때 우리는 진리로 인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현임 고등 평의원인 다니엘손 형제는 회상한다. “그날 저녁이 끝날 무렵에 우리는 즉시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몬트로세 감독은 다음날 밤에 만날 약속을 잡았고, 이런 만남은 계속되었다. 몇 주 만에 테리이노호푸아 가족은 침례와 확인을 받았으며, 일년 후에 그들은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지금 저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마르구에리테 자매는 말한다. “성전에서 저는 큰 평화와 기쁨을 느낍니다.”

헤이리 와드의 샹테렐 하우아타 또한 성전 참석의 기쁨을 알고 있다. 비록 양성 뇌종양으로 인해 6년 전에 시력을 잃었지만, 성전에서 그는 영적으로 더 분명히 보고 있다. “그곳은 분명히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성전에서 우리는 영원에 관해 배웁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지상 생활 너머로 들어올려 줍니다.”



페페 마리테라기 가족 또한 성전의 축복을 느꼈다. 2003년 10월에 파에아에 있는 본가에 모였을 때, 그들은 페페의 아내이자 어머니와 할머니인 테파후에 관해 이야기했다. “모친은 여섯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라고 아들 중 하나인 루시엔이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여전히 어머니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복음 덕분입니다.”라고 다른 아들인 장마리는 말했다. “성전의 축복은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이해를 갖게 해줍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것은 교회의 성숙도와 힘에 대한 또다른 표시이다. 타바라로 와드의 모로나이 알바레스 감독과 그의 아내, 주아니타는 그의 할아버지까지 이어지는 유산에 관해 말한다. 그들은 그들 여섯 자녀 모두의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졸업장과 여섯 명 모두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던 당시의 사진을 펼쳐 보았다. 그들은 성전에서 결혼한 자녀들과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손자녀들에 관해 말한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었습니다.”라고 알바레스 감독은 설명한다. “지금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타히티 파에아 스테이크 마타티아 와드의 제이렛 펠처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 해 전에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봉사한 형, 30세의 로렌조와 두 남동생, 18세의 나리이와 14세의 하이람을 만나게 된다. 제이렛은 21세로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두 남동생도 전임 선교사가 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가족 안에서 선교사 전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라고 제이렛은 말한다. “그러나





타카로아의 타히아 브라운은 섬에 널려 있는 수십 개의 진주 양식장 중 한 군데서 일하고 있다.

로렌조 형이 선교사로 나갔을 때,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며, 지금 우리는 동생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주는 한 겹 한 겹씩 계속 자라고 있다.

타카로아: 유산의 본향

여러분이 타카로아에 살다 보면 진주에 관해 알게 될 것이다. 이 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계를 진주 양식에 의존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진주가 자라는 진주 조개를 키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가비를 깨끗이 닦아 진주 조개를 끈에 단 다음 속에 진주 핵을 넣고는 진주 조개를 물속에 매달아 진주를 수확하거나 아니면 보석이나 기념품으로 만든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져다가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꺼냅니다.”라고 타히아 브라운은 말한다. 그는 섬에 널려 있는 수십 개의 진주 양식장 중 한 군데서 일하고 있다. 그녀와 마리 테이호아리이, 과거에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던 두 사람은 후기 성도들이 만든 목걸이, 탁자 장식품 및 기타 공예품을 전시하기를 좋아한다. 브라운 자매는 이렇게 설명한다. “저는 어머니에게서 이 일을 배웠어요. 이곳에서는 대부분의 자매들이 이 일이나 기술을 요하는 다른 어떤 공예를 해요. 우리는 먹을 것을 벌고 우리의 시간을 선용하기도 하지만 또한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나는 아름다운 것으로 진주와 조가비만 있는 것은 아니다. 테라 테마하가와 같은 자매들은 정교한 부채, 모자, 바구니에 매듭을 엮어 넣기도 하고, 티파파 마호투와 같은 자매들은 천과 실을 이용하여 형형색색의 퀼트와 베개를 바느질한다. 전언에 따르면 에디슨 프렛의 아내인 루이사가 처음으로 퀼트 만들기를 가르쳤다고 한다. 그녀는 1850년에 이 섬에 도착했다.

타카로아 사람들의 공예술에 대한 또다른 증거는 섬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1891년에 짓기 시작한 흰 색의 아름다운 교회이다. 이 건물은 그것이 나타내는 유산으로 괄목할 만하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미국에서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선교사들은

1852년에 이 섬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선교사들은 1892년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100여 명의 성도가 타카로아에 충실하게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들 후기 성도들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커다란 예배당을 짓고 있었다. 한 달만에 선교사들은

33명의 새로운 회원들에게 침례를 주고 확인을 했으며, 성도는 다시 불어나기 시작했다.

“교회가 우리의 삶을 감리하듯이 오늘날 예배당이 마을을 감리하고 있습니다.”라고 82세의 마호투 자매는 말한다. 그녀의 후기 성도 뿌리는 증조부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예배당은 우리의 조상들이 주신 유산을 상기시켜 주며 우리가 그분들처럼 충실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배당 옆에 있는 가족 역사 센터의 책임자인 수잔 피마티는 조상들을 기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노년의 모임을 준비하고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석을 격려하느라 많은 시간을 전화기 앞에서 보낸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을 찾기를 갈망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엘리야의 영은 타카로아에서 강하게 역사한다.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피마티 자매는 많은 이름을 성전에 보낼 계획을 갖고 있다.

“한때는 타카로아 인구의 90퍼센트가 후기 성도였습니다.”라고 타카로아 투아모투 지방부의 테이리 테이호아리이 회장은 설명한다. 1950년경에는 인구가 줄었지만 1960년대에는 진주 양식 산업이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다. 오늘날 1,000명의 주민들이 있는 타카로아 섬에는 두 개의 지부에 총 380명의 회원들이 있으며, 이웃 섬들에는 네 개의 지부에 450명이 회원들이 더 있다.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들이 계속 섬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테이호아리이 회장은 설명한다. “젊은이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기숙 학교로 멀리 떠나고 있지만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에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육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세미나리는 그들이 복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 줍니다.”라고 테이호아리이 회장은 말한다.

성전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매년 우리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 성전으로 여행하는데, 청소년들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합니다.”라고 테이호아리이 회장은 말한다. “청소년들에게 많은 격려가 됩니다. 여행에 필요한 돈을 저축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전에 가고 싶다면

합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은 그들이 강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록 부름으로 인해 때때로 다른 섬을 방문해야 하지만 테이호아리이 회장은 그의 가족이 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한다. “집으로 와서 제가 맨 처음에 하는 일은 아내 마리와 그리고 두 딸에게 회원들의 신앙과 간증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즐거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영이 함께함을 느낍니다.” 그의 아내도 이에 동의한다. “교회에는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축복도 있어요. 해야 할 즐거운 일이 있고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 교회는 번창할 거예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타카로아 섬에 저녁이 찾아온다. 태양이 저물고 있다. 성도들이 모일 때 하얀 예배당 주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청소년들은 세미나리를 위해, 피마티 자매는 가족 역사 사업을 행하기 위해, 테이호아리이 회장은 두 지부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다. 석양 무렵의 은은한 노을이 마치 반짝이는 진주빛 같다. ■

왼쪽: 타히티에서 베테이 타마가 에디 타마를 침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타카로아 예배당. 티파파 마호투는 이 예배당이 “마을을 감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교회 지도자들인 피에르 투마라에, 제임스 엘



브라운, 티에리 테이호아리이가 예배당에서 만나고 있다. 수잔 피마티는 가족 역사 센터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질 의 응 답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이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 및 가족 경전 공부를 하도록 격려할 수 있을까요?”

리아호나의 대답

여러분은 가족 기도, 가정의 밤, 가족 경전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지님으로써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신앙을 쌓아 주고,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며, 가족 안에서 좋은 느낌을 만들고, 또한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 복음 공부 및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몇가지 되지 않지만 온 가족이 교회에서 활동적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들을 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모범을 보이십시오. 온 가족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혼자서 또는 형, 누나, 동생과 함께 기도, 경전 공부, 또는 가정의 밤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계명을 성취하는 여러분의 모범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줄 것입니다.

가족이 가정의 밤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을 위해 가정의 밤이 재미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처음에는 게임을 하거나 교회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즐기는 다과와 활동을 준비하십시오. 공과를 통해 복음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나중에는 그들이 공과를 발표하고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해 좋은 모범을 보인다.

가족들에게 참여를 권유하고 가정의 밤을 그들에게 즐거운 시간으로 만든다.

경건하고 사랑이 가득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족이 영을 느끼도록 돕는다.

가족에게 인내하고 계속 노력한다. 가족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의 축복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싶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와 줄 수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 회원이라면 대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을 것이고 단지 도움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공과 준비를 제의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긍정적인 태도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부모님이 이런 활동을 하자고 부르면 신속히 응하십시오. 부모님이 회원이 아니라도 주례 가족의 밤은 좋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한두 번 계획하여 가정의 밤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얼마나 유익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 시간에 주님의 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고, 복음과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를 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영에 의해 감동을 받을 때 그들은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가족에게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참으려 노력하십시오. 화를 내는 것은 이런 활동을 통해 얻으려 하는 느낌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권유하고, 그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재미있고 영적인 가정의 밤을 계획하는 등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런 후에는 여러분의 가족이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인내하며 사랑을 지니고 좋은 모범을 보이면,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친형제 자매와 함께, 또는 온 가족과 함께 이런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가족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은 여러분의 가족을 강화시키고

여러분을 주님께 더욱 가까이 인도해 줄 것입니다.

독자들의 대답

가족 경전 공부 및 기도 시간이 되면, 저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5분 뒤에 경전 공부와 기도 시간이 시작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끝낼 시간을 줍니다. 가정의 밤에서 우리는 돌아가면서 공과를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의 부모에게 말씀드리고 달력에 표시를 하여 공과를 맡은 사람에게 미리 상기시켜 주자고 제의할

수 있습니다.

코트니 모스, 15세,
캘리포니아 모레노 밸리 스테이크
히든 스프링스 와드



핵심은 기도, 사랑, 신앙입니다. 따라서 때가 되면 가족의 단합을 유지하려는 여러분의 노력 그리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려는 여러분의 소망을 가족들이 느낄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이애나 마틴즈, 18세, 포르투갈 리스본 스테이크
리스보아 제5와드

우리 가족이 가정의 밤에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여동생과 저는 직접 만든 초대장을 가족들에게 돌리며 언제 어디서 공과를 할 것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www.lds.org 사이트로 가서 공과를 계획했습니다. 여동생과 제가 촌극을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공과가 끝나면 다과 시간을 갖습니다.

오렘 리스, 13세,

아이다호 아이다호폴스 테일러 마운틴 스테이크

우드헤이븐 와드



가정의 밤, 기도, 경전 공부를 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이는 큰 동기 부여는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행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 머물 것입니다.

에리카 파트리시아 고메스 다 실바, 15세,

브라질 과루자 스테이크 과루자 와드



우리 가족은 가정의 밤을 갖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항상 가정의 밤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즐기는 어떤 것을 하고 또 가족에게 참여를 권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단순한 결정을 통해 매주 월요일마다 가정의 밤을 빼먹지 않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을 크게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애슐리 애킨슨, 17세, 온타리오 서드베리 스테이크

브레이스브리지 와드



모든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함으로써 저는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경전을 읽고 우리 가족이 영향을 받기를 기도하며 가족 안에서 모범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로토무아 레알라이살라노아, 16세,

사모아 페세가 스테이크 페세가 제3와드



저는 부모님께 우리가 하려는 일들을 부탁하여 가족이 동기를 갖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밤에서



“일일 밤은 교회 전체적으로

가정의 밤을 행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이 시간을 가족 유대 강화와 가정에서의 복음 교육을 위해 남겨 두시기를 권고합니다.

“금년 초에 우리는 ...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가족 기도와 가정의 밤과 복음 공부 및 교육, 그리고 건전한 가족 활동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가정의 밤”, 리아호나, 2003년 3월호, 4쪽 참조.

공과를 자청합니다. 특별 다과를 준비하는 것은 그날 가족을 함께 모으는 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가정의 밤을 매주 가족들이 두려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싶은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자렛 레버, 15세, 솔트레이크 할러데이 사우스 스테이크 할러데이 제4와드



우리는 개인 기도, 가족 기도, 일일 경전 읽기 등등을 보여 주는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활동을 끝낼 때, 도표에 스티커를 붙이고 가장 많은 스티커를 얻은 사람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도민게스 루비아노, 15세,

멕시코 몬테레이 리베르타드 스테이크 페드레갈 와드

우리는 주님의 영을 가정으로 불러들임으로써 가족에게 계속해서 동기를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서로 부드럽게 말하면서 조화롭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바네사 티 테우포오라우토아, 18세,

타히티 라로마타이 스테이크 히푸 지부

리아호나와 독자들의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독자들에게: 아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와드와 스테이크(또는 지부와 지방부) 명칭, 사진 등과 함께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11/05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전자 우편: cur-iahona-imag@ldschurch.org

2005년 11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질문

“선교사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교회가 참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자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영원한 가족에 관한 지식을 얻은 것을 기뻐함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우주의 위대한
부모께서는 아버지로서의 염려와
부모로서의 관심을 갖고서 인간 가족
모두를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그분의 자녀로 바라보십니다.(History of
the Church, 4:595)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성전 사업은 가족,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
각 사람, 그리고 지상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 각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 성약 및 가족 관계의 존엄성, 그리고
영원한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각
사람은 신성한 가족의 일원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형제요 자매입니다.”(“왜

성전을 지을까요?”, 성도의 벗, 1992년
6월호, 4쪽)

교리와 성약 110:14~15: “보라,
말라기의 입으로 말한 바 그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그가 증거하기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엘리아)가
보내심을 받아—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할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나는 영원한 가족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1838~1918년):

“우리의 [가족] 관계는 이 현세만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우리의 애정과 소망은
영원토록 ... 지속되기 위해
맞추어지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386쪽)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영원한 인봉은 우리가 성전에서 맺는 인봉
성약의 결과로서,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올 영원한
세상에서 무엇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봉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고
가족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영원한 가족”, 성도의 벗,
1997년 1월호, 65쪽)

**앤 시 핑그리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저는 여성이 그리스도를
마음 한가운데, 즉 자신의 세계의 중심에
모시겠다고 택할 때, 가족의 수가 많은
적든 자신의 가정과 가족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곳에 살든, 어떤 상황이든, 가정과
가족의 심장으로서 각 여성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자신의 가정에서 그 환경과
분위기에 반영됩니다.”(“그러므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택하라”,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10쪽) ■



신권의 열쇠

신권 정원회와 그 목적에 대한 연재 기사 시리즈의 아홉 번째 기사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열쇠는 합당한 권세를 지닌 사람, 그리고 그의 권세가 교회에 알려져 있는 사람의 안수에 의해 부여된다.

열쇠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열쇠를 주머니나 지갑에 갖고 다닙니다. 어떤 열쇠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일 뿐 아니라 귀중하고 강력하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열쇠들은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권의 열쇠입니다.¹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회의 기본이 되는 원리, 정책, 교리는 왕국의 열쇠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² 그 열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권의 권세를 감리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열쇠에는 스테이크, 워드 또는 지부, 선교부 또는 지방부, 신권 정원회 또는 성전 등과 같은 교회의 지역 조직을 감리하는 권리가 따릅니다. 열쇠는 합당한 권세를 지닌 사람, 그리고 그의 권세가 교회에 알려져 있는 사람의 안수에 의해 부여됩니다.³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열쇠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한 분들이 지닙니다. 교회 회장, 즉 선임 사도가 전체 교회를 감리하며 그는 지상에서 열쇠들을 완전하게 행사하는 유일한 분입니다.⁴ 회장은 특정한 직분과 부름에 있는 다른 신권 소유자들에게 열쇠를 부여하거나 그 부여를 승인함으로써 권세를 위임합니다.⁵

신권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하도록 사람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러한 일을

지시하는 권능이 신권의 열쇠를 구성한다.”⁶

신권을 지니는 것과 신권의 열쇠를 지니는 것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열쇠가 주어질 때 그는 신권을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갖는 것은 신권의 사업을 지시하는 권리입니다.

준비와 허가

거룩한 신권을 지닌 사람으로서 잘 봉사하기 위해서는 준비와 허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경험 하나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을 받기 전에 나는 외과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두 개의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니다. 나는 두 곳의 전문가 위원회에서 증서도 받았습니니다. 그런 오랜 준비에는 많은 세월이 걸렸으나 교육만으로는 일반을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법적인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 정부와 내가 일하고 싶은 병원 이사회의 승인으로만 허락될 수 있었습니니다. 적절한 권세를 가진 관계자들이 내게 면허증과 허가를 준 이후에야 나는 어떤 질환으로 인해 외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보살필 수 있었습니니다. 법적인 집행자가 그들의 열쇠를 행사한 이후에야 내가 준비를 갖추어 왔던 봉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로 나는 그런 특권을 허락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즉, 법적 및 윤리적 기대에 부응하고 내게 맡겨진 권한을 결코



남용하지 않겠다는 의무를 지게 된 것입니다.

준비와 허가라는 중요한 단계가 의료(그리고 다른 전문직)에 관련된 것처럼, 그런 것은 또한 신권 봉사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권, 즉 아론 및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사람들은 신권 봉사를 행하는 권세를 갖습니다. 주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은 복음의 성스러운 의식을 수행할 권리를 갖습니다. 열쇠는 그런 봉사의 수행을 승인합니다.

신권의 권세와 신권의 권능 사이에도 또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권의 한 직분에 성임될 때 그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권능은 그런 권세를 의롭게 행사할 때 옵니다.⁷ 따라서 비록 신권 소유자가 권세를 갖고 있을지라도 권능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을 합당하게 만들고 신권의 의무와 교리를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신권 소유자가 권능을 갖고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신권이 영원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권은 현재 지상에 살아 있는,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또한 앞으로 살게 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 모두에게 유익을 줍니다. 신권을 지닌 사람들은 신권 권능의 축복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어지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들은 그런 열쇠를 현명하게 그리고 의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⁸

신권 열쇠의 역사

신권의 열쇠와 권세는 역사상 고대, 지상에서의 주님의 성역 시기, 현대라는 세 시기를 통해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기 1: 고대. 신권의 권세는 고대에, 심지어는 지구의 창조 이전에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신권은 영원 불변하는 원리이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였고, 영원까지 존재할 것입니다”⁹ 브리검 영 회장(1801~1877년)은 [신권의] “현재 존재하며, 과거에

사진 촬영: 게리 이미지, 알렉산더 사진, 모델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데이먼드, 성인의 사진



존재하였으며,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 세상을 가능하게 하는 율법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¹⁰

전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존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에 “통치자”(영적 지도자)로 택함을 받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¹¹ 경전은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질서를 좇아 그분의 미리 아시는 지식에 따라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준비된 제사장들을 예임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신권을 지니라는 우리의 부름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고되어 있었습니다.¹²

아담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신권의 권세를 받았습니다.¹³ 우리는 “신권이] 아담에게 최초로 주어졌[으며] 그가 제일회장단의 직을 얻었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그 열쇠를 지녔다.”¹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내려오면서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혈통에 따라” 부여되었습니다.¹⁵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지칭하면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모든 선지자는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선언했습니다.¹⁶

시기 2: 지상에서의 주님의 성역 시기.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분의 십이사도들에게 신권을 부여하시고 신권 열쇠의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도였던 베드로에게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¹⁷ 주님은 또한

이런 열쇠들을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¹⁸

그런 약속이 있고 일주일일이 안 되어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지시 아래 신권의 열쇠가 모세와(또한 일라이어로 알려진) 엘리야에 의해 이들 사도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¹⁹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 권세의 근원에 대해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²⁰

이후로 오래지 않아 구세주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초기 사도들이 그들의 사업을 다하기 전에도 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언된 대로 배도가 일어났을 때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들의 가르침이 거부되었으며 성스러운 의식들이 더럽혀졌습니다.²¹

시기 3: 현대. 신권 열쇠의 회복은 때가 찬 이 경륜의 시대에 일어난 많은 기적들 중 하나입니다.²² 선지자 조셉이 가르쳤듯이, “이 열쇠는 하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으로 전해져야” 했습니다.²³ 1820년에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829년 5월에 침례 요한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했습니다.²⁴ 그렇게 하면서 그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부여했습니다.²⁵ 이후 곧 이어 선지자와 그의 동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손으로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습니다.²⁶ 조셉 스미스는 교회를 조직하고, 선교사를 보내며, 신권 지도자들을 성임할 열쇠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은 앞으로 특정한 신권의 열쇠들을 맡게 될 다른 사람들에 관해 조셉과 올리버에게 말씀하셨습니다.²⁷ 각 사람이 차례로 조셉과 올리버에게 이 열쇠들을 부여했습니다.

- 모세, 이스라엘의 집합과 열 지파를 인도해 내는 열쇠.²⁸

- 일라이어스, 아브라함의 성약의 열쇠.²⁹

- 엘리야, 인봉 권능의 열쇠.³⁰

조셉 스미스는 회복된 이 신권 열쇠를 그의 시대에 부른 사도들 모두에게 부여했습니다.³¹ 다시 이 열쇠는 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교회의 현재 지도자들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 회장은 “창조의 시초부터 어느 때든지 경륜의 시대를 받은 모든 자”가 지녔던 모든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³²

내 생애에서 성스러운 순간이 1984년 4월 12일,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손을 내 머리에 얹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내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권의 모든 열쇠들이 부여되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처럼 나도 이 후일에 회복된 신권의 모든 열쇠를 지니고 있으나, 어떤 열쇠는 선임 사도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거나 그가 사망하지 않는 한 사용되지 않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 있는 우리 모두는 책임의 무게와 시대를 초월한 신뢰의 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위하여 또 마지막 때를 위하여”³³ 회복된 열쇠를 우리가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

성임 또는 성별을 위해 머리에 손이 얹힐 때 그 신권의 권세를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는 의무와 책임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소중한 것, 즉 자동차, 집 또는 좋은 기계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재산을 잘 사용할 것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에게 그 열쇠를 빌려

주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무를 갖게 됩니다. 빌려준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빌려간 사람의 성공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이와 동시에 여러분의 귀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충분히 가르치고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 또한 책임을 집니다. 그 사람은 적용되는 법칙을 알고 그것에 따르고, 여러분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 현황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같은 개념이 신권의 열쇠에 적용됩니다. 성전 회장,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지방부 회장, 감독, 지부 회장, 그리고 정원회 회장은 회장단의 신권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쇠는 교회에서 그들 단위 조직의 권능을 다스립니다. 교회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은 사람을 부르고 해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부르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 신권 성임 또는 부름을 받는 회원들은 순종과 책임이라는 의무를 집니다.

모든 신권 정원회는 한 명의 회장을 갖는데, 그것은 집사, 교사, 제사, 장로, 대제사 정원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각 회장은 권능의 열쇠를 갖습니다. 정원회 활동과 봉사의 기회는 그 열쇠를 갖고 있는 회장이 승인합니다. 정원회 회장이 열쇠들을 갖지만, 그의 보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 조직 회장들은 열쇠를 갖지 않습니다. 보조 조직 회장은 열쇠를 지닌 사람에게서 받는 임무 지명에 따라 봉사하며, 또한 열쇠를 지닌 사람은 그들 각 사람이 일하도록 권세를 위임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권 부름에서 해임될 때, 만일 열쇠들이 부여되어 있다면, 그 열쇠들은 합당한 권세에 따라 새로운 지도자에게 주어지기 위해 회수됩니다. 예를 들어 감독이 해임되면 감독 직분에 대한 그의 신권 성임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워드 감독으로 봉사하기 위한 그의 신권 열쇠는

신 권은 고대에 “조상의 혈통에 따라” 부여되었습니다.



새로운 감독에게 부여됩니다.

계시, 충성, 봉사의 특권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³⁴ 하는 엄숙한 맹세와 성약 아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됩니다.

충성 또한 한 사람의 신권에 있어서 권능을 받는 데 몹시 중요합니다. 부르고 해임하는 열쇠를 지닌 사람에 대한 충성은 단합을 촉진할 것이고, 그 단합은 성공에 필수적입니다.³⁵ 주님은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³⁶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의 정한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요, 내가 준 열쇠로 인도되어 다시는 전혀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³⁷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신권 봉사의 특권이 오용된다면 그것이 회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활동에서도 똑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무모하게 운전한다면, 앞으로는 소유자로부터 운전을 승낙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신권 권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권의 특권을 오용한다면, “주의 영은 심히 슬퍼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세는 아멘”입니다.³⁸

거룩한 신권을 지닌 각 사람은 다른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그런 특권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현재 지닌 책임에 대해 예임되었다는 점을 아는 것은 나를 겸허하게 만듭니다.³⁹ 구세주께서 그분의 거룩한 신권과 그에 따른 성스러운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신임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현명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

주

1. 러셀 엠 넬슨, “신권의 열쇠”,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40~42쪽.
2.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21쪽.
3. 교리와 성약 42:11 참조.

감독은 회장단의 신권 열쇠를 갖고 있다. 그는 사람을 부르고 해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부르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교리와 성약 132:7 참조.
5. 교리와 성약 107:8~9, 91~92; 124:123 참조.
6. 조셉 에프 스미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141쪽.
7. 러셀 엠 넬슨, “개인의 신권 책임”,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44쪽 참조.
8. 신권 열쇠에 관한 내용은 *교회 지침서*, 제2권: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159쪽에 요약되어 있다.
9.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53쪽.

1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25쪽.
11. 아브라함서 3:23 참조.
12. 엘마서 13:1~5 참조.
13.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53, 163~165쪽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78:16 참조.
14.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53쪽.
15. 교리와 성약 84:15; 또한 교리와 성약 84:6~17; 107:41~57 참조.
16.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76~177쪽.
17. 마태복음 16:19; 또한 교리와 성약 128:10 참조.
18. 교리와 성약 7:7 참조.
19. 마태복음 17:1~5 참조;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54쪽 참조.
20. 요한복음 15:16; 또한 교리와 성약 7:7 참조.
21. 회복된 경전은 비슷한 예언과 약속을 전해 준다. “만일 나의 백성이 내 음성과 내 백성을 인도하도록 내가 임명한 나의 종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들은 자기 자리에서 옮겨지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124:45).
22. 교리와 성약 27:13; 128:18, 20~21 참조.
23.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53쪽.
24. 교리와 성약 13편; 27:8; 조셉 스미스-역사 1:69, 72 참조.
25. 교리와 성약 13:1; 107:20; 조셉 스미스-역사 1:69; 또한 교리와 성약 129편 참조.
26. 교리와 성약 27:12~13 참조.
27. 교리와 성약 27:6~13 참조. 모로나이 또한 물문경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었음.(교리와 성약 27:5 참조)
28. 교리와 성약 110:11 참조.
29. 교리와 성약 110:12;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르스 알 맥콩키 편, 3:109~110쪽 참조.
30. 교리와 성약 27:9; 110:13~16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128:17~18, 21; 132:7, 19 참조.
31. *구원의 교리*, 3:154~156 참조.
32. 교리와 성약 112:31; 또한 30절 참조.
33. 교리와 성약 112:30.
34. 교리와 성약 84:44.
35. 교리와 성약 124:45~46 참조.
36. 교리와 성약 38:27.
37. 교리와 성약 35:25.
38. 교리와 성약 121:37.
39. 엘마서 13:1~5 참조.

개종

나는 무신론자로서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의 참됨에 관해 배웠을 때 그 모든 것이 변했다.

바츨라바 스보보도바

은

생애 동안, 나는 하나님은 없다고 배웠다. 내가 체코 공화국을 대표하여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교환 학생으로 가기 위해 지원했을 때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지원서를 작성할 때, 한 가지 질문은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였다. 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적었다. 그러나 나는 무신론자였다.

기대에 차서, 나는 지원 결과를 기다렸다. 나는 어디에 살게 될 것인가?

나는 유타에 사는 후기 성도인 그랜트와 주얼 호드슨 가족에게 배정되었다. 유타가 어디지? 물론? 그들은 누구지? 나는 책에서 유타에 대해 찾아보았다. 그리고 나는 물문들에 대해서도 찾아 보았다. 책에는 교회, 특히 조셉 스미스에 대해 끔찍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었다.

나는 울며 집에서 마지막 날 밤을 보냈다. 나는 너무 무서웠다.

어머니는 나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그 가족이나 유타가 마음에 안 들면 집으로 돌아와 다른 가족을 배정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키셨다.

내가 유타에 도착했을 때, 딸들 중 한 명인 에밀리가 마중을 나왔다. 그녀는 열여섯 살이었고, 보통의 캐주얼 옷을 입고 있었으며, 매우 친절했다. 나는 “어쨌든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는데!”라고 생각했다. 가족들은 모두 따뜻했고 나를 반겨 주었다.


나는 문화적 차이를 꽤 경험했다. 나는 주인집 가족들이 매 식사 전과 취침 전에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들은 도덕을 중시하는 삶을 살았다. 모든 것이 내가 알던 십대들이 사는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였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인 것 같았다. 나는 이 사람들이 그들의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나는

물문에 관하여

유타의 현황

유타 여행 가이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압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와 같이 확신에 찬 종교적인
발언은 전에는 결코 들어 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나도
알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생활
방식과 미래의 계획을 바꾸어야만 할 사람은 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알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던 것이다.

교회의 참됨에 관해 스스로 알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가지고,
나는 집주인 가족의 모범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내게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사는 방식은 나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게 만들었다. 나는 그런 신앙을 결코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교회 지도자가 “사람들은 여러분을 얹으로써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호드슨
가족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다. 그들은 가족이
살아가야 할 방식에 관해 나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었다.

나는 기도를 시작했다. 삼 주 동안 기도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약간 낙담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합당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주에 나는 매달 첫번째 주 일요일에 있는 호드슨 가족의
전통적인 간중 모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어머니인 주얼은
내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지 물었다. 나는 “물론이죠.”라고
대답했으나 “무슨 얘길 하지?”라고 생각했다.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호드슨
가족이 내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그들은 내게 매우 인내심 있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나를 친딸처럼 대해 주었고 어떤 것도 강요한 적이
없었다. 나는 진정한 감사를 표현할 생각이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말을 했다. 나는 일어나서 그들의 친절과
인내심 또한 하나님에 관해 내게 가르쳐 주려는 그들의 소망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나를
압도하는 강한 느낌이 밀려들어 왔다. 언어의 장벽은 사라졌다;
나는 영어를 말하는 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처음으로 나는
유창하게 말을 했다! 이와 같은 것을 전에는 결코 느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영감을 받은 것처럼 말을 했다.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느낌이었다. 나는 조용히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다.
너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너는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알았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나는 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게 뭐였지?”라고 생각했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나의 질문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조용히 말씀하셨다. “네가
느끼고 있는 게 바로 영이란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와, 정말이네.”라는 것뿐이었다.

나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도록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날은 행복한 날이었다. 나는 매우 깨끗하고
새로워진 느낌을 받았다! 주인집 가족 이외에도, 나를 지지하기
위해 와드에서 온 많은 회원들이 나를 둘러쌌다. 나는 매우
고마웠다.

내가 유타에서 체코 공화국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내가 사는
도시 크라스트라바(인구 8,000명)에서뿐 아니라
크라스트라바에서 6마일(10km) 정도 떨어진 도시인
리베레츠(인구 120,000명)에서도 유일한 회원이었다. 나는 호텔
접수계원으로 일하면서 사립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나는
고향에서 새로운 자리를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나를 절망에서 구해 줄 기적을 간구했다.
나는 또한 나의 옛 습관과 친구들을 멀리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마침내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선교사들이 내가 교사로
일하고 있던 리베레츠에 왔다.(나중에 나는 호드슨 형제님이 체코
공화국 선교부 회장님께 연락을 해서 나에게 관해 말했다는 것을



바 출라바 혹은 종종

웬디라고도 불리는
그녀는 가는 곳마다
복음 메시지를 전한다.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시고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임을
그녀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영이 속삭여 주었던
그 저녁을 기억한다.

알게 되었다. 현재 나의 고향에는 약 40명의 후기 성도가 있는 지부가 있다.)

그 이후로 나는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에 다녔고, BYU-하와이에서 미술 학위를 받았다. BYU-하와이에 다닐 때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배구 팀에서 활동한 것이었다. 그 특별한 캠퍼스에서, 나의 간증은 점점 커졌다.

현재 나는 체코 공화국에 있는 나의 집에 돌아와 있다. 나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길 원한다. 처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렇게 개종을 한 나를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셨다. 지금 그들은 나를 완전히 지지하며, 내가 받은 교육에

감사하고 있다.

아마 나는 미술 선생님께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 곳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은 미술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에게 참된 행복의 계획을 가르치고 싶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복음과 인생의 정말 좋은 모든 것들을 갖길 원하신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 주실 것을 안다. 나는 계속해서 그분께 항상 인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 바출라바 스보보도바는 체코 프라하 지방부 리베레츠 지부의 회원이다.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방법으로 선교 사업을 하고 저활동 회원들을 활동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길 원하십니다.

로드리고 미러 장로

지역 칠십인
브라질 남부 지역

교리와 성약 18편은 우리에게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길 바라신다고 가르칩니다. 이 편을 읽을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는 교회의 저활동 회원들을 활동화시키는 일과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에 관한 많은 경험들이 떠오릅니다. 그 경험들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필요한 노력들을 한다면 주님께서 이 사업을 이끄시리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경험들 중 하나는 제가 충실한 후기 성도 가정 안에서 양육된 한 젊은이의 가정 복음 교사로 지명 받았던 몇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집을 떠난 후, 다른 길들을 선택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저와 제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의 방문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찾아오고 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 혼란스러워할 때, 그가 찾은 사람은 가정 복음 교사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의 스테이크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어떤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진실하게 그분을 찾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고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을 때, 저는 기뻐하며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가까운 곳에서 그를 계속 도와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제 가정 복음 동반자로 일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매달 그와 저는 네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를 강화시키고 그를 다시 복음 안에서 활동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매달 저는 네 개의 다른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회개하고 충실히 모임에 참석하며 진실하게 성찬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의 희생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여섯 달 동안 우리는 가족 중에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던 한 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항상 잘 대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활동화시키거나 그의 아내나 세 자녀를 침례 주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일요일에 그분의 자녀들을 차에 태워 교회에 데려감으로써 그들을 교회에 참여시켜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 동반자의 특별한 책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실패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곧 침례를 받았습니다. 와드 전체가 부모를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주님의 영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번은 매달 방문할 때마다 거의 한 마디도 하지 않았던 제 동반자가 목소리를 높여 매우

감동적으로 자신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서 매우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팔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간증은 매우 진실하고 강력했으며 영이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 모두 감동되었습니다. 그 주에 그 아내는 선교사 토론을 듣기로 결심했고 마침내 침례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활동화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가족은 여전히 활동적이며, 그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인봉 받았습니다. 제 동반자는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자매와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그들에게는 이제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며 와드와 교회에 귀중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의 결과 여섯 명이 복음으로 개종했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경전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으로 인한 그의 기쁨은 얼마나 크고!

“이러므로 너희는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부름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클진대,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3~16)

이 경험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1. 주님은 이 일을 관리하시는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선교 사업에 기울이는 노력에 관심이 있으시며 직접 관여하십니다.

2.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의 방문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방문하는 집에 주님의 영을 동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방문하는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야 합니다.

3.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저활동 회원들을 활동화시키도록 해 주는 일과 개종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와드나 지부 지도자들은 와드나 지부 평의회 그리고 신권 집행 위원회와 협력하여 우리가 선교 사업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방법으로 선교 사업을 하고 저활동 회원들을 활동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그분의 손에 쓰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너 몰몬이니?

한 동료는 후기
성도들에 대해
그릇된 지식들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는가?

아나 리 그라니엘라 로페스

대 학교 2학년 때, 나는 학생 조교로 대학 도서관에서 일을 했다. 12월 어느 날 나는 다른 학생 조교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나는 전에 그를 만나 본 적이 없었으므로, 일을 하면서 대화할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학교, 일, 그리고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날 오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는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종교에 대해 물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주어서 내가 그에게 교회에 대해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그렇게 했다. 나는 매우 신이 났다. 왜냐하면 이것은 훌륭한 선교 사업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활짝 웃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는 놀라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별로 유쾌하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몰몬? 너 몰몬이니?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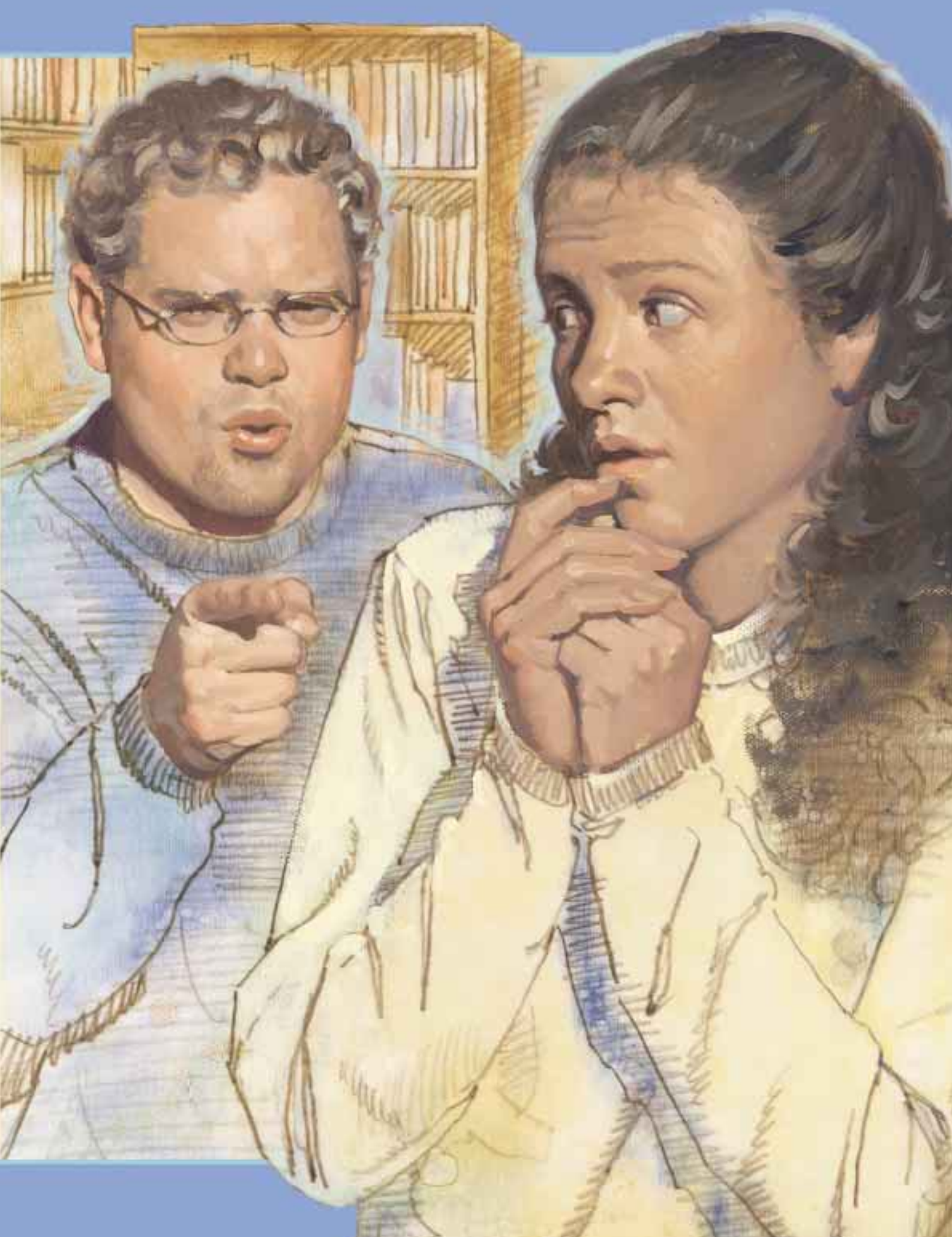
그가 하는 말들을 듣고 있기가 힘들었다.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려던 것은 아니었다.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은 있었지만, 지금 그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그런 말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내 머리에 떠오른 유일한 말은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야!”라는 것이었다.

나는 마음속에 “진리와 의를 위해 서라”는 청년 주제를 되풀이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계속해서 다른 조교에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갖고 계신 사랑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교회의 회원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을 배웠다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의 느낌으로 말했다.

내 동료는 더 듣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나의 말에 비난조로 응수했다. 그는 또한 몰몬경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 그가 말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했다. 나는 그가 들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와 논쟁하려 하고 있었기에 나 역시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설명을 계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간증을 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이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그 회원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고 유포시키는 까닭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기독교인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음을



고백하거나, 또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근거로 한 종교를 추종하는 자”로서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을 나타내는

두 가지 특성은 (1)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2) 구주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은 성도 또는 후기 성도라고 불리우며, 이 두 가지 특성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또는 후기 성도라고 하는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은 위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앙의 “모퉁잇돌”(에베소서 2:20)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조셉 비 워스린 장로, “기독교인의 믿음과 행위”, 리아호나, 1997년 1월호, 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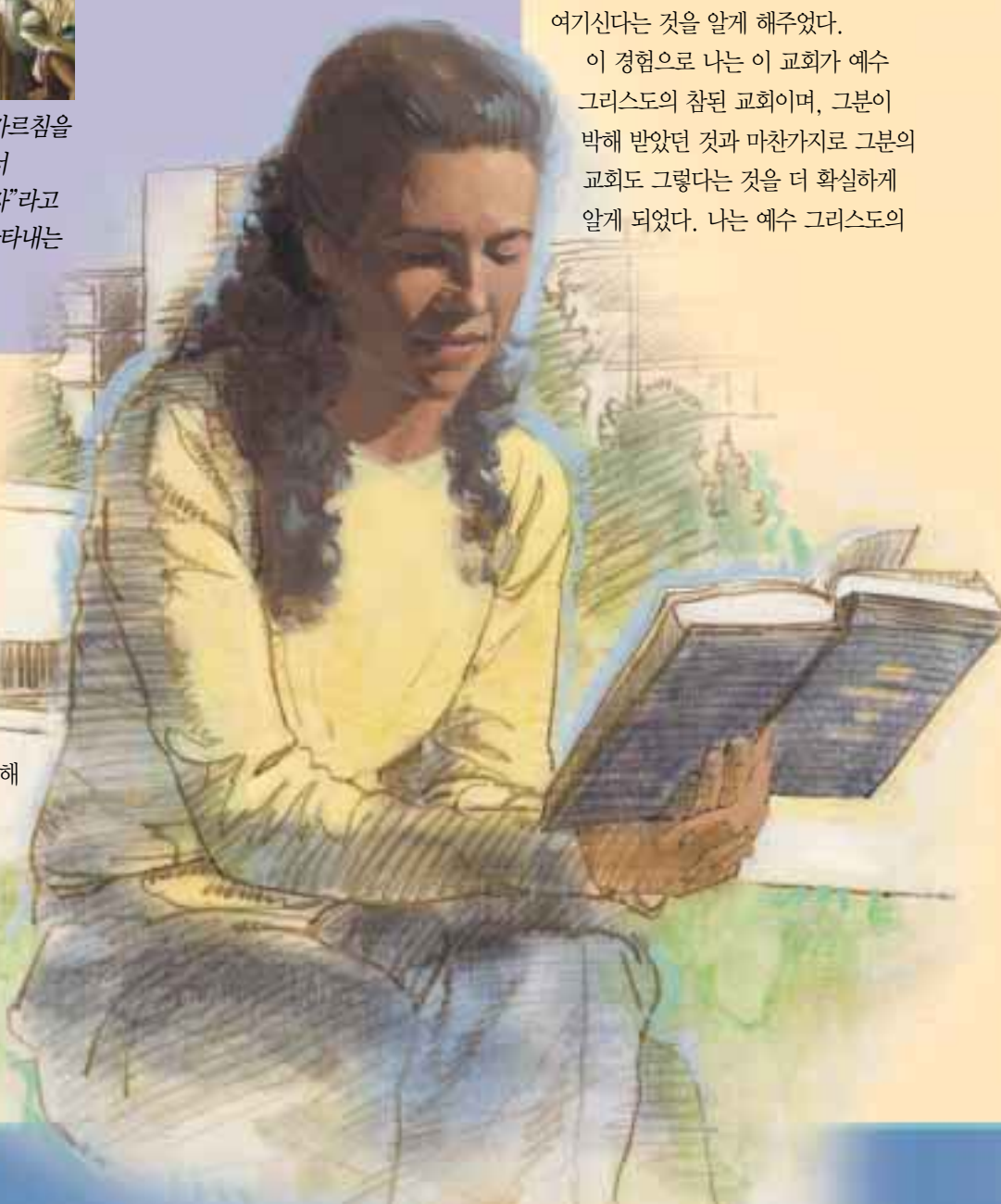
기도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애고 싶었다. 나는 평생 동안 내가 배운 것에 대해 확신을 갖기를 원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느끼고 싶었다. 기도는 내가 가진 최상의 도구였다. 기도와 성신은 앞서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리고 내 동료에게 어떻게 간증을 해야 할지 알도록 해주었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이 경험으로 나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이며, 그분이 박해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교회도 그렇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

도서관을 떠나면서, 나는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나는 내가 그에게 간증할 때 느꼈던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그가 했던 방식으로 그가 자신을 표현하도록 허락했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나는 화가 났고 두려웠으며 내가 말했어야 했던 것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그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에 나는 좌절감을 느꼈고 내 자신의 영성의 수준을 의심했다. 나는 실패했는가?

집에 오는 길에, 나는



복음과 그분의 교회에 대한 확고한 간증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우리가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 성공적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교회의 모든 젊은 회원들이 확고한 간증을 얻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간증을 전할 때, 우리의 간증은 그 결과로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을 수 있다. 그들이 지금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도 그들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 ■

아나 리 그라니엘라 로페스는 푸에르토리코 마야게스 스테이크 카보 로호 제2와드의 회원이다.

더! 더!

이 주제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면, www.lds.org의 Gospel Library에 나와 있는 다음의 영어 기사들을 참조한다.: Richard C. Edgley, "A Disciple, a Friend" (*Ensign*, May 1998); Stephen E. Robinson, "Are Mormons Christians?" (*New Era*, May 1998); and Robert E. Wells, "We Are Christians Because ..." (*Ensign*, Jan. 1984).



왜 우리는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한

성직자에게서 왜 후기 성도들은 십자가를 몸에 지니거나 건물에 걸지 않는지에 관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힝클리 회장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대성당의 침탑이나 예배당의 제단에 십자가를 사용하거나 성직복에 십자가를 부착하고, 책이나 기타 다른 출판물에 십자가를 새겨 놓는 기독교 동역자들 어느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는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상징인 반면 우리의 메시지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성직자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종교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회원들의 삶이 우리 신앙의 가장 의미 있는 표현이며, 또한 사실상 우리 예배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우리 신앙의 상징”, *리아호나*, 2005년 4월호, 2쪽.

대답하는 방법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 “내 말을 선포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네 허가 풀리리라. 그런 후에 네가 원하면, 너는 나의 영과 나의 말, 참으로, 사람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1:21)

구주에 관한 교회의 기본 교리를 공부하여 그 교리를 안 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이 여기 있다.

- 교회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설명한다. 다른 이름들은 별명일 뿐이다.
- 그들에게 교회 회원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해 주고 물문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는 구절을 찾아 보여 준다.
- 복음의 회복, 즉 조셉 스미스는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상에 회복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 가능하다면, 그들을 지역 방문자 센터에 데려간다. 그들에게 구주의 그림과 조각상을 보여 주고 선교사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한다.
- 그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가도록 초청하면 그들은 교회 회원들이 구주를 믿는다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다.
- 교회의 기본 교리들에 관한 훌륭한 설명을 볼 수 있도록 www.mormon.org의 “Frequently Asked Questions(자주 묻는 질문)” 밑에 있는 “Beliefs and Doctrines(믿음과 교리)” 링크를 가르쳐 준다.
- 그들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논쟁하지 않는다. 구주에 대한 간증을 하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참되다고 말한다.
- 사람들이 여러분의 간증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아는 것들은 여전히 참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한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으로 여러분이 기독교인임을 증거하도록 한다.

세미나리에 매료되어



타히티의
십대들은 경전
공부에
몰두한다.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꽃

내음을 실은 미풍이 불어오고 야자수가 하늘까지 뻗어 있는, 대양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아름다운 어느 열대 섬에서 후기 성도 십대들은 경전의 힘을 발견하고 있다.

“모이는 장소”라는 의미인, 타히티 섬에서는, 많은 청남 청년들이 경전을 배우고 복음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 새벽 5시 15분이라는 이른 시간에 모여들고 있다.

타히티의 세미나리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117개의 섬들 중 몇 개 섬들과 마찬가지로 참석률이 높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도전이지만, 이 청소년들은 축복이 희생보다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그건 쉽지 않아요.”라고 타히티 아루에 스테이크 마히나 와드에 다니는 17세의 바이티아르 티모가 말한다. “그러나 피할 길은 전혀 없어요. 와야만 해요. 주님이 저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저는 주님께 봉사해야만 해요.”

각 청소년은 저마다 참석해야 하는 자신만의 이유를 갖고 있다. 그들은 배우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친구를 찾기 위해, 삶의 문제들에 있어 매일의 도움을 얻고, 선교 사업과 결혼을 준비하고,

개종하기 위해, 주님께 봉사하고, 좋은 느낌을 받고, 그리고 안전을 찾기 위해 온다. 그들은 세미나리가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경전에 몰두하게 함

“저는 배우기 위해 와요.”라고 타히티 파에아 스테이크 오로페로 와드에 다니는 열다섯 살 레이몬드 챔맨은 말한다. “경전과 선지자의 삶에 대해 더 알기 위해서요. 저는 알고 싶어요.”

만약 레이몬드가 경전에 대해서 더 배우길 원한다면, 세미나리가 알맞은 장소이다. 세미나리 교사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우리는 경전이 학생들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경전에 몰두하도록 노력합니다.”

이 학생들이 점점 경전에 빠져 들고 있고 경전은 점점 그들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열여덟 살의 카레레 테이호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교리와 성약 10편 5절이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여 네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또 그의 일을 떠받드는 사탄의 종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

“사탄은 매우 강해요.” 마히나 와드의 회원인 카레레는 말한다. “매일 아침 세미나리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유혹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해요. 그건 효과가 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해 보인다. “전 완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았어요.”

카레레와 같은 학생들이 그들이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 경전의 힘은 정말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세미나리는 우리가 복음을

생활에 적용하도록 도와 줘요.”라고 오로페로 와드에 다니는 열네 살의 벤자민 투아히바는 말한다. “선지자들의 삶은 우리에게 모범이 돼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부분이 좋았어요.”라고 벤자민의 반 친구인 열네 살의 루미나 테마우리는 말한다.

“그것은 어떻게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 좋은 모범이에요. 저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벤자민과 루미나의 세미나리 교사인 아리오티마 마히라바 자매는 학생들에게

카레레 테이호, 바이티아레
티모, 켄트 마나라니(아래)
그리고 루미아
테마우리(왼쪽), 세미나리는
단지 그들이 경전을
이해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그것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매주 한 개의 성구 익히기 카드를 익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각 성구 익히기 카드의 뒷면에는 그 구절이 가르치는 바를 학생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이 나와 있다. 마히라바 자매는 학생들에게 한 주 동안 그 구절을 개인적으로 적용한 후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지 교실에서 간증하도록 한다.

“복음이란 것은 오직 일요일에만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학생들이 깨달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마히라바 자매는 말한다.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은 멋진 일이에요.”

세미나리의 축복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세미나리 학생들은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기회에 감사한다. 그들은 그들의 충실함에 대해 많은 축복들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다.

“물론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라고 카레레는 말한다. “그것은 우리 종교의 종석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개종하도록 도와 줍니다. 저는 그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또한 선지자들의 말씀과 경험에 감사하게 되었다.

“우리가 경전에서 배우는 이야기들은 매일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바이티아레는 말한다.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한 행동은 오늘날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현대 선지자들의 삶의 경험들도 제게 도움이 돼요. 특히 조셉 스미스는요.”

“저는 세미나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라고 카레레는 말한다. “매일 아침 복음에 대해 배우려 감으로써 제가 선교 사업을 하러 갈 때 가르치고 간증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의지할 누군가를 찾음

세미나리는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세미나리 친구들

“여러분이 종교 교육원 대학부나 세미나리에 참석하여 거기서 복음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지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함께 누리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구를 교회 회원들 가운데서 찾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단결하여 서로를 강화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유혹의 시기가 닥쳐와 여러분에게 힘이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축복해 줄,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 성도의 벗, 1998년 8월, 16쪽.

함께하는 힘을 또한 발견하게 한다.

“같은 시간에 모이는 반들이 몇 개 있어요.”라고 바이티아레는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반과 다른 와드 학생들과도 알게 돼요. 우리들 대부분은 같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회원인 친구들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같은 표준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들의 믿음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회원이 아닌 친구들과도 많은 일들을 해요.”라고 바이티아레는 말한다. “그렇지만 때때로 내가 하는 것을 믿는, 의지할 수 있는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후일의 안전

바이티아레도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 적어도 공부를 하면서 그녀에게 그만큼 도움이 될 또다른 구절을 찾을 때까지는 말이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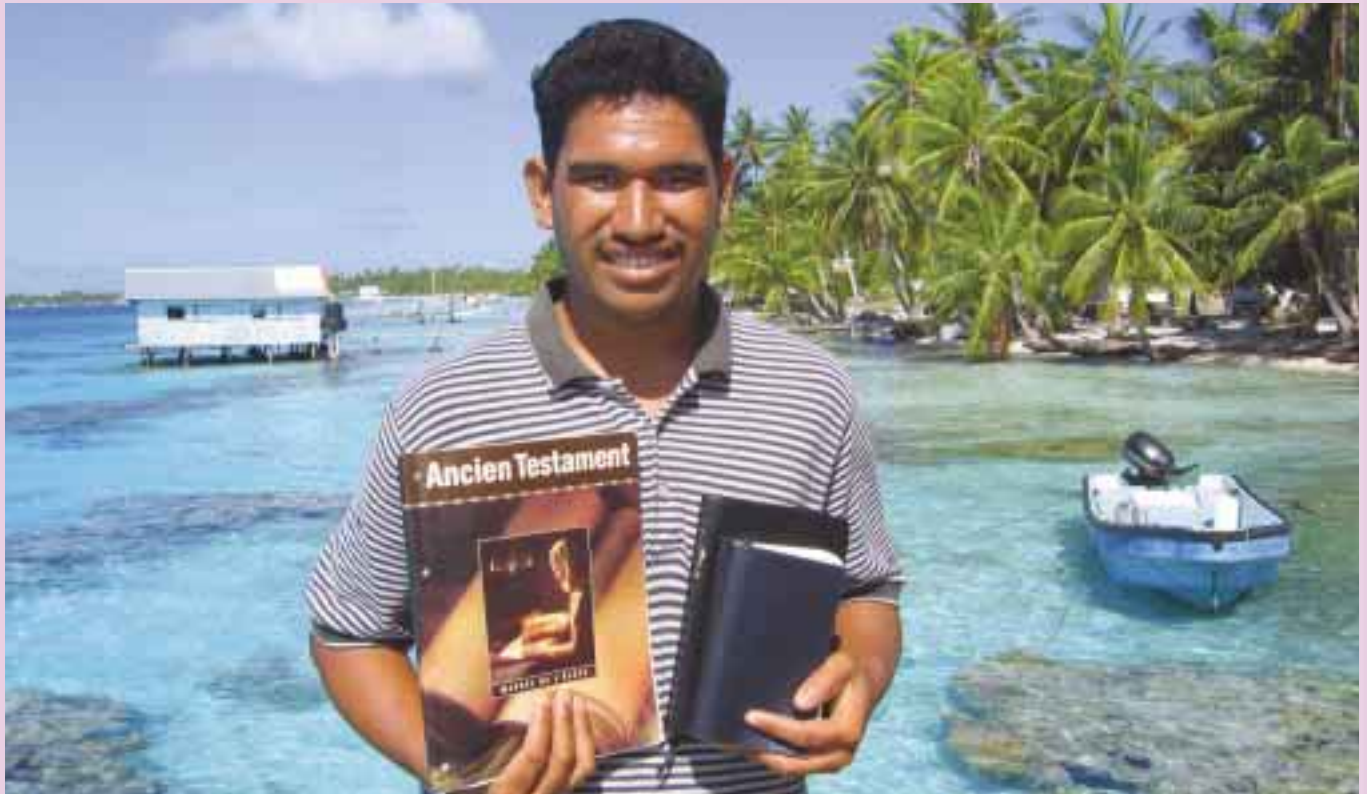
“우리가 경전을 읽는다면 경전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선지자들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지침입니다. 우리가 경전과 선지자의 말씀에

따른다면, 마지막 날에 안전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미나리에 모이고 경전에 몰두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다. ■



레이몬드 챔맨은 세미나리에서 즐겁게 경전 공부를 한다.



어두워진 후의 세미나리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타히티에서 북동쪽으로 400마일 떨어진 타카로아 섬에서, 세미나리는 이른 아침에 하는 활동이 아니라, 저녁에 하는 활동이다. 매주 수요일마다 한 번, 해가 질 때면, 히나 가르벳 자매는 학생들에게 회복된 복음에 대해 가르친다. 그녀는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때인 1850년 대에 확립된 공부 방식을 따르고 있다. 사실, 세미나리 반은 1890년대에 지어진 예배당 옆에서 갖는다.

타카로아에 살고 있는 십대들에게 세미나리는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식 교육이다.

초등 교육이 존재하긴 하지만, 중학생들에게 유일한 선택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섬에 위치한 기숙 학교에 가는 것이다.

“이곳 청년들은 제사밖에 없어요.”라고 투아모투 타카로아 지방부 타카로아 제2지부에 다니는 열일곱 살의 테투아레레 테마하가위쪽은 말한다. “집사와 교사는 모두 학교를 다니러 떠났어요. 하지만 남아 있는 여섯 명의 제사와 세 명의 청년이 세미나리에 와요. 모든 아이들이

이것은 학교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요, 그리고 함께 있는 것을 즐깁죠. 세미나리는 우리가 계속 배울 수 있게 해 줘요.”

타카로아에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처럼, 테투아레레는 진주 농장에서 일한다. 그는 4시 30분이라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낮 동안 다이빙과 수영을 해서 무거운 굴 줄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린다. 청년인 열네 살의 히나누이 테히나, 열다섯 살인 타피우 티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나일론 실에 굴을 묶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물 속에 집어 넣을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해서 진주가 자라고, 그것은 타카로아의 경제를 계속 살아 있게 해준다. “이곳은 우리를 필요로 해요.” 타피우는 설명한다. 그녀는 잠시 동안 기숙 학교에 다녔으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지내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후에, 타카로아의 십대들은 긴장을 풀기 위해 무엇을 할까?

“별로 하는 게 없는데요.” 테투아레레는 웃는다. “텔레비전을 봐요, 별로 볼 게 없긴 하지만요, 아니면 수영을 하러 가요. 우리

대부분은 낚시를 가요. 우리는 음식을 얻기 위해 낚시를 가요, 하지만 재미로도 가요.”

일요일과 수요일은 특히 반가운 날이다. “일요일엔 물론 우리는 교회에 가요. 그리고 수요일 밤은 세미나리에 가죠.” 히나누이가 설명한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요.” 테투아레레가 자신이 공부한 많은 원리들 중의 하나에 관해 말한다. 성전의 중요성이다. “우리는 그곳에 세상의 것들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것은 주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불결한 것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실, 이곳 세미나리 학생들에게 흥미진진한 목표 중의 하나는 돈을 저축해서 다른 지부 회원들과 함께 타히티에 있는 성전에 가는 것이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침례를 받을 거예요.” 히나누이가 말한다. “그것은 좋은 목표예요. 교회와 세미나리에서 배우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집을 가리킵니다.” ■





모습은 매우 놀랍게 바뀌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았다. 그는 곧은 자세로 섰으며, 군복을 입거나 메달을 걸고 있진 않았지만 거의 군인처럼 보였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태도는 군인의 당당한 모습이었다. 천천히 자신감을 갖고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그는 끊임없는 전투로 땅이 피와 고통, 그리고 죽음으로 뒤덮인 지역의 보병 대대에서 복무했다. 그의 분대는 유별난 엄격함으로 동료들의 미움을 사고 있는 하사관의 지휘를

받았다. 어느날 밤 박격포 포탄이 이 하사관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서 터졌고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사령관은 부상자와 죽어 가는 사람들을 후방으로 이송하여 돌보거나, 매장하기 위해 이따금 지나가던 낱아빠진 트럭을 멈춰 세웠다.

분대 대원들은 죽어가는 그들 상관의 운명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사령관은 그를 트럭으로 데려가 후방까지 동행해 줄 지원자를 찾았다.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다.

그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타마스 형제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동정심 때문에” 나섰다고 말했다. “나는 이 불행한 동료를 안고 그의 여행에 동행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 무도 죽어가는 그 상관을 돕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타마스 형제가 앞으로 나섰다.

동정심에 감동되어

후안 알도 레오네

마 르고 연로한 타마스 형제님은, 안식일 모임이 시작될 때 모여서 서로에게 인사하는 교회 회원들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혼자 떨어져 앉아 있곤 했다. 그분은 작은 체구에 수수한 외모를 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에 침례를 받았고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 그의 스페인어는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그리고 그의 모국어인 헝가리어가

섞인 것이었다. 그와 우정 증진을 하려는 회원들과의 짧은 대화에서 그는 머나먼 헝가리에 대해 말했다.

어느 날 감독님은 그에게 성찬식에서 몇 분간 말씀을 하도록 부탁했다. 그는 놀랐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도 그의 이름이 발표되는 것을 듣고 놀랐다. 우리는 짧고 간단한 간증을 듣게 되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가 연단에 섰을 때, 그의

“나는 나중에 분대를 찾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방에 다다랐을 때 나는 내가 떠난 그날 밤 맹렬한 폭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분대 중에 살아 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동정심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내 목숨을 구해 주셨고 내게 회복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에게 대한 우리의 단순한 애정은 깊은 이해, 존경,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 준 데 대한 감사로 바뀌었다.

■ 후안 알도 레오네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시에라스 스테이크 빌라 알렌데 와드의 회원이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의 사슴들

아르린 하우스맨

오래 전 어느 날 나는 남편을 학교에 내려 주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운전을 해서 유타 산맥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

나는 갓 태어난 우리의 아기 에이프렐을 데리고 있었다. 그 시절엔 갓난아기를 위한 카시트가 없었다. 그래서 에이프렐은 담요에 싸인 채 앞 좌석에 있는 베개 위에 누워 내 다리를 베고 있었다.

늦은 밤길에 졸지 않기 위해



십일조를 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아나 크리스티나 메리노 리바스

나는 침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회원이 아닌 남자와 결혼을 했다. 그는 내가 버는 모든 돈을 통제하고 십일조를 내지 못하게 했다.

나는 10년이라는 길고 불행한 세월 동안 고통을 겪었으며 그 동안 발전할 수 없었다. 마침내 나는 이혼을 했고 내 딸과 나의 생활을 책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버는 돈은 집세와 전기 및 수도 요금, 음식, 의복,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을 감당하는 데 충분치

않았다. 한 가지를 살 돈이 있으면, 다른 것을 살 돈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나는 십일조를 내기 시작했다. 항상 그러했듯이 나는 계속해서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나는 그전과

똑같은 월급을 가지고도

모든 것을 위해 충분한

돈이 내게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나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분은 결코 나를 저버리지 않으셨다. ■

아나 크리스티나 메리노 리바스는 유타 노스파크 스테이크 노스파크 제2와드의 회원이다.

나는 교회에서 불렀던 폐회 찬송가 “낮도 다간 이 저녁에”(찬송가, 72장)를 불렀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비는 눈으로 변해 길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굽은 길을 돌아 좁은 이차선 차로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한

무리의 사슴 떼가 바로 내

차선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자 차가 미끄러졌다. 내

오른쪽은 산이었고, 길 왼쪽은

강으로 떨어지는 절벽이었다.

앞으로 곧장 가는

것 외에는

아무데도 같

곳이 없었다.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기를 꼭 잡은 채, 나는 부딪칠 준비를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슴들은 그 순간 옆으로 비켜서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

사슴 떼 속을 빠져 나온 후에, 나는 백미러를 보았다. 사슴 무리는 전조등 불빛을 보고도 꼼짝하지 않은 채 흠어들어가지 않았다. -사슴들이 놀랐을 때 보통 그러는 것처럼. 그들은 그저 뒤로 물러나서 작은 폭스바겐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자리를 내 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내게 마치 흥해가 갈라진 일과 같이 느껴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10마일(16km) 동안 기쁨으로 가득 차 “나와 함께 머물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집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면서, 나는 그것이 큰 비극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내가 사슴을 단 한 마리만 치었더라도, 나의 조그만 차와 아기와 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사슴을 칠 뻔한 장소는 농가에서 5마일(8Km) 떨어진 곳이었고, 계곡을 통과하는 그 길이나 집까지 오는 나머지 길에는 단 한 대의 차도 없었다. 나는 팔에 아기를 안고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

아르린 하우스맨은 워싱턴 어번 스테이크 화이트 리버 와드의 회원이다.

“몰몬 가입 금지”

익명

우리는 교회 회원들이 그리 많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로 막 이사를 갔다. 우리의 작은 지부 사람들은 친절하고 서로 매우 가까이

굽은 길을
도는 순간,
나는 한
무리의 사슴떼가 바로 내
차선에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자 차가 미끄러졌다.

지내는 사이였고, 우리는 매주 안식일과 교회에 참석하는 기회를 즐겼다. 우리의 유일한 걱정은 지부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 비슷한 연령의 친구가 몇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남편과 나는 교회 밖에서 친구를 사귀어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알게 되는 길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그 지역 아이들이 나에게 우리가 몰몬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룹에 들어오는 걸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내 희망은 곧 꺾여 버렸다. 나는 후기 성도들이 별로 없었던 다른 지역에서 그와 비슷한 그룹에 속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종교가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 그룹의 리더에게 아무에게도 나의 종교를 설교하거나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우리 가족과 나는 그저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길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확고한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리스도와 같고, 다정하게 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다른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놀게 했고, 이웃 가족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으며, 사람들을 알기 위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우정과 친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에 관한 연차 대회 말씀과, 교회 잡지 기사들, 그리고 경전을 읽었다. 그리고 나서 이 원리들을 내 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후기 성도 가족이 얼마나 친절하고 사랑스러운지 보여 줄 수 있다면 이 그룹은 조만간 분명히 우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이 사교 그룹의 리더들과 사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몬 가입 금지”라는 결정에 있어 확고한 태도를 보였다.

그래도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다정하고 친절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면서 또한 유사한 사교 그룹을 이웃 마을에서 찾아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도 몰몬은 자신들의 그룹에 가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너무 실망해서 울고 싶었다. 이 두 마을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그들은 우리가 친절하고 재미있는 가족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걸까?

나는 가능한 한 친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영이 나를 인도하고 도와 주시기를 간구했다. 나는 그들이 마음의 변화를 겪고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나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는 희망을 산산히 부숴 놓는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그 그룹의 리더는 내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이 그들의 그룹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서 이미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기 때문에 미래에 그 그룹에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을까 봐 염려했다. 그들은 심히 상처를 입히는 말을 했으며 나는 실망해서 울었다. 그 모든 저녁 식사와, 봉사 프로젝트, 과자와 길에서 나는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어디서 내가 잘못된 거지?

그날 밤 나는 교회에 대해 그렇게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데 도움을 주시도록 진실한 간구를 드렸다.

내가 쏟은 노력으로 인해 이제 나는 그들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설명드렸다.

응답은 한동안 내가 받았던 어떤 느낌보다도 강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

처음에 그것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라고 나는 생각했다. 과자, 우정, 먼저 친해지려는 노력—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와 같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받은 유일한 느낌은 “그리스도를 따르라”였다.

그 지역 어린이 그룹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몰몬”이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전력을 다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후기 성도로서의 나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친절하고 다정하고 싶기 때문에 친절하고 다정한 것이지, 이기적인 이유가 있어서 친절할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은 내가 우리 종교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로 인해 문제를 겪을 때마다 나의 모토가 되었다. 이제 나의 친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며 그것으로 인해 축복을 받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며 그곳에 가는 유일한 길은 구주를 따르는 것이다. ■





선지자의 권고에 감사드리며

리아호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세계에서 생활하는 후기 성도들의 간증을 읽노라면 마음이 기쁨으로 차고 넘칩니다. 특히 2004년 9월호의 제일회장단 메시지에 실린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의 권고, 즉 악에 대항해서 목소리를 높이라는 내용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 기사는 또한 가족 강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매일 저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해 감사드리며, 또한 전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는 리아호나 잡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캐롤리나 텔로 바가스, 네이바 콜롬비아 스테이크 벤탈라도 와드

성전에서 느끼는 영

저는 성전이 제 삶에 가져다준 느낌을 언제나 좋아했습니다. 성전이 없어 방문할 수 없던 지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고 나자 2년 동안 그러한 느낌 없이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와 비슷한 느낌을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리아호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들을 읽노라면 성전에서 느꼈던 바로 그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앨런 허버트 실바 장로, 브라질 고이아니아 선교부

쇠막대처럼

리아호나 잡지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회원이 된 지 5년이 되었는데 리아호나는 내내 쇠막대처럼 제가 험착하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또한 리아호나는 제게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교회와 회원들을 이끄신다는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하비에르 엔리케 보오르케스 잠브라노, 에콰도르
파야갈 남 스테이크 칼데론 와드

행복을 가져다주는 리아호나

리아호나를 정말로 좋아해요. 어린이난을 읽으면 행복해지고 저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들을 찾을 수가 있지요. 옳은 일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어 좋은 말만 하고 기쁘게 생활하려고 노력한답니다.

레온티 멜키스텍 라모스 오초아, 9세, 멕시코
파달라하라 인데펜덴시아 스테이크 아우디토리오 와드

힘의 원천

리아호나에 대해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어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저는 리아호나에서 힘을 얻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읽을 때 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없지 않을까요?

메리 앤 디 랜치스, 필리핀 알라미노스 지방부
알라미노스 제1지부

여러분의 재능을 발휘하십시오!



전

문 예술가이거나
사진사로서 교회 잡지 관련
업무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은 분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해서는 예술 관련 기사와 다큐멘터리 작업을 마감일 내에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신 작업을 digital 견본 최대 10개까지 전자 파일 형식(이메일당 최대 1.5메가바이트의 PDF나 JPEG 파일)으로 연락처와 경력 사항을 짧게 담아 cur-artist-photographer@ldschurch.org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관련 정보와 작업 파일들을 다음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Artists and Photographers, Liahona, 50 East North Temple Street, Floor 24,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용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주님께 간구하도록
권유하는 핑클리 회장

고든 비 핑클리 회장

프랑스 작가인 기 드 모파상의 작품 가운데 오치콩이라는 한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을 공터를 지나가던 오치콩은 자갈 위에 끈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워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잃어버린 지갑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오치콩은 체포되어 시장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시장에게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가 주운 끈을 보여 주었으나, 아무도 그를 믿으려 하지 않고 비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이 문제의 지갑이 발견되어 오치콩은 무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거짓 기소로 인해 받은 모욕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된 그는 그 일을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치콩은 용서하고 잊으려 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뇌이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는 결국 슬픔에 억눌려 깊은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고통 속에서도 오치콩은 “끈, 끈”하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끈”, 기 드 모파상 작품집출판

날짜 없음.], 34~38쪽 참조)

등장 인물과 상황만 다를 뿐이지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어느 누구에게나 매우 힘든 일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양갓음하겠다는 생각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계시다면, 서로 그 상처를 감싸 주도록 합시다.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복수심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쉽지도 않을 뿐더러 빨리 그러한 힘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힘을 얻고자 구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9)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화평입니다. ●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 성도의 벗, 1991년 11월호, 2~7쪽 참조.





친구들



출발점

나는 항상 옳은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여호수아 24:15)

마가렛 에스 리퍼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여러분이 매일 내리게 되는 결정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입을지, 말할지, 읽고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나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가능한 거랍니다. 우리는 그걸 선택의자라고 하지요. 우리의 선택의지를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이 옳은 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옳은 일을 택하도록 도와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돌아와서 함께 살게 되기를 원하시니까요. 이걸 기억하세요. 바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으며, 그러면 그분은 옳은 일을 택할 수 있게 용기를 얻도록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옳은 일을 택하도록 도움을 주시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여러분이 따를 수 있도록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스스로 물어본다면 옳은 일을 택할 수 있을 거랍니다.

성신도 여러분이 옳은 일을 택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빼놓을 수 없는 분이랍니다. 여러분은 침례 받고 성찬을 취할 때, 계명을 지키겠다고 성약(약속)을 맺게 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신이 여러분과 함께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답니다. 성신은 옳은 일을 하도록 알려 주고, 경고도 해주시며, 옳은 일을 택할 때는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도록 축복해 주신답니다.

선지자도 여러분이 옳은 일을 택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경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연차 대회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귀기울이세요. 그분들의 권고에 따르면 바로 옳은 일을 택하게 됩니다.

“옳은 일을 택하라” 미로

친4쪽에 있는 미로를 따라가세요. 올바른 결정을 나타내는 그림을 선택하세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미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지혜의 말씀과 단정함에 대한 표준을 가르치기 위해 네모난 모양의 종이를 준비하여 다음 구절들을 그 위에 적는다. 교리와 성약 89편 7, 8, 9, 10, 11, 12, 14절. 그리고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다음의 인용구도 적는다.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단정한 차림의 청녀는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단정한 차림의 청남은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문신이나 귀걸이 또는 신체의 어느 곳에 다른 고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문신을 새겼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행동을 후회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청녀 여러분, ... 단정한 [귀걸이] 한 쌍 정도면 충분합니다.” “후기 성도 청남 청녀 여러분 [마약을 시험해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선지자의 권고와 기도”, 리야호나, 2001년 4월호, 30~41쪽) 단정함과 지혜의 말씀은 바로 자신의 신체를 돌보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위 내용을 적은 종이를 가방에 넣는다. 노래를 다같이 부르면서 가방을 옆으로 계속 넘긴다. 노래를 멈추고, 가방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참조 성구를 하나 선택해서 읽도록 권유한다. 지혜의 말씀과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에 대한 원리에 대해 토론하고 가르친다.

2. 복음 그림 팩킷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그림을 8~10장 골라 칠판에 붙인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며, 또한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몸소 모범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함께 모인 반들이 그림 하나를 각각 골라 성구나 그림 뒷면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읽도록 한다. 각 반원들이 역할 담당극으로 이야기를 발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우리가 친구가 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생애에서 루 진을 위한 기도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는 스테이크 대회 때문에 외국으로 여행을 해야 했는데, 딸 루 진이 매우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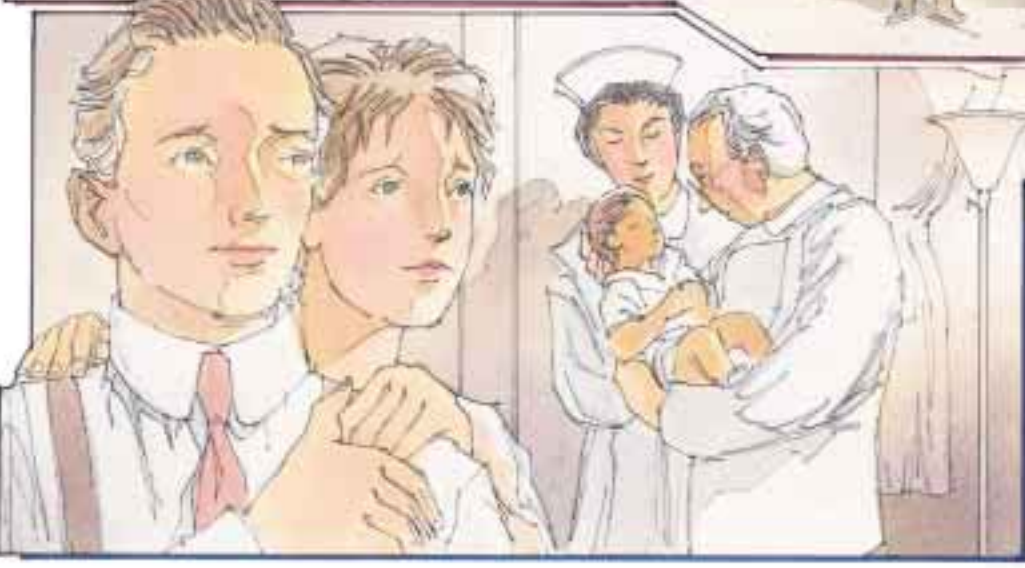
최대한 빨리 돌아오리라.



루 진은 아직 살아 있지요?

아직 살아 있지만, 상태는 네가 떠나기 전보다 더 악화되었단다.

맥케이 장로는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곧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전보를 받았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 자신을 마중 나왔던 아버지를 볼 수 있었죠.



의사와 간호사가 맥케이 장로의 집에 밤새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며칠간 도움을 주기 위해 와 있었죠. 그렇지만 루 진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지만 했답니다.

일요일이 되자 맥케이 장로와 아내 에머 레이는 루 진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러 있었고 아들 로렌스와 루엘린만 교회에 보냈습니다.



애야, 오늘 주일학교
반원들이 루 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회장에게
부탁 좀 하려므나?

예, 아버지.

맥케이 장로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죠. 맥케이 장로는 11시에 반원들이 부탁한 기도를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애들아, 루 진의
몸이 회복되어 가는구나! 오늘 아침
11시에 안정을 찾더니만 조용히
잠들었단다.

아버지, 주일학교
반원들이 기도한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 회원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드린 기도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야. 그분께 감사드려야겠다.

맥케이 장로의 아들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David Lawrence McKay*에서 발췌 수정, *My Father, David O. McKay*(1989), 51~52.

행복을 가져다주는 복음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기쁨의 소리!”(교리와 성약 128:19)



태평양 제도의 지역
철십인인 진 에이 테판
장로와 가진 인터뷰에서
발췌. 교회 잡지의 킴벌리
웹이 기사 작성

저는 타히티 섬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입하셨는데, 저는 같이 침례 받지 않았습니다. 열한 살이 되던 해 수요일 오후 어느 날 초등학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망고 나무 밑에 돛자리를 펴고 앉아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첫번째 시현을 가르쳐 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걸 듣자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이 참되다는 것과 조셉 스미스가 정말로 선지자였다는 걸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한 후에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간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침례 받을 거예요.”

제가 침례 받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녔던 학교마다 회원이라곤 저밖에 없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담배 안 피우지? 술도 안 한다며? 넌 남자도 아니야. 꼭 계집애

같다구!”라고 놀려댔습니다.

중학교 2, 3학년 학기말에는 몇몇 반 친구들이 파티에 술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잡아서 앞에 앉혀 놓고는 삼페인을 입에 부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치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놀려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그런 상황을 잘 모면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킨 걸 절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중 몇몇은 벌써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건강하게 살아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은 나이가 들어서 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네를 존경한다네. 내 가족들에겐 돈이 많지, 그런데 자네들만큼 행복하지가 않아.” 그건 바로 후기 성도 회원 모두에게 하는 칭찬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복음대로 생활하면 행복하게 된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가족과 함께한 테판 장로

저는 피지 수바 선교부에서 회장으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키리바시 섬에서 장로 돌하고 같이 걷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내쫓고 싶었지만 술 취한 사람이 제 명찰을 보고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테판 회장님, 회장님과 선교사들에게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음, 술에 취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를 거야.” 그러나 장로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대에 응하겠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장로들은 가고 싶다고 했고 저도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중국 음식을 먹었는데, 치킨, 생선과 다른 고기들, 그리고 면류로 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평상시 항상 먹던 생선과 밥이 아닌 색다른 음식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행복해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즈음에, 그 남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선생님에게 전해 줄 선물이 있는데요. 이 선교사들이 선생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어도 괜찮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자신은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선교사들이 아내와 열여덟 살 된 아들에게 가르치는 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 그 18세의 아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1년 후에는 아내도 침례를 받았고 그 남자도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담배와 술을 끊을 수 있도록 저에게 축복을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축복을 받은 후 정말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아들은 브리검 영 대학교-하와이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했고 또한 홍콩에서 봉사하라는 선교사 부름장을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가족과 함께하며 얻었던 경험을 돌이켜 보면서 그 “술 취한 남성”을 쫓아 버리지 않고, 영의 음성에 따라 식사 초대를 받아들이고, 입을 열어 복음을 듣도록 권유했던 것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에게도 입을 열도록 부탁드립니다. 바로 여러분의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복음에 대해 배우도록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



회복된 진리

Hänföngig ♩ - 11'-16

1. 조 셉 스미 스 기 도 하 여 아 버 지 아 들 뵈 오 니
2. 신 - 성 한 숲 속 에 서 주 의 음 들 었 고

두 분 영 광 대 낮 보 다 더 옥 밝 게 빛 냈 네
음 진 리 물 문 경 서 회 복 시 켜 주 셧 네

기 도 로 써 우 리 - 에 게 진 리 - 회 복 됐 으 니
매 일 읽 고 상 고 - 하 여 기 도 - 하 여 뉘 으 면

들 - 리 세 영 광 존 귀 영 원 무 궁 하 도 록
주 의 진 리 다 알 도 록 우 리 말 을 비 추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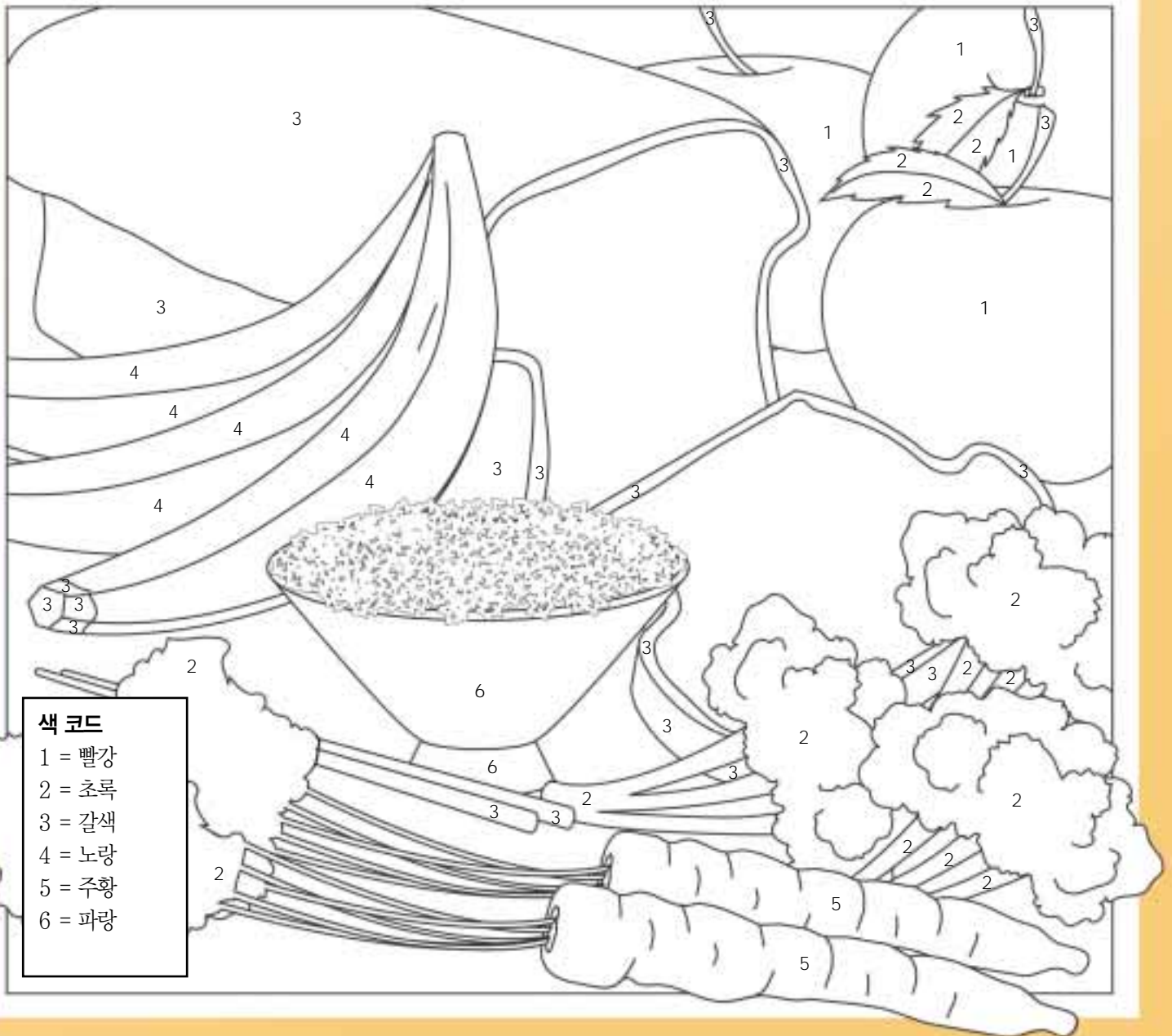
작사: 앨런 엘 존스 2세, 1931년생 © 2004 IRI
작곡: 루트비히 반 베토벤, 1770~1827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음.

훌륭한 선택

줄리 와델
교회 잡지

하 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몸을 잘 돌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교리와 성약 89편에서 몸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편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색을 칠해 보도록 하세요. 기준 색으로 그림에 색칠을 하도록 하세요. 숫자가 없는 곳은 그대로 남겨 두세요. 이 그림을 사용해 가정의 밤이나 초등학교에서 지혜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색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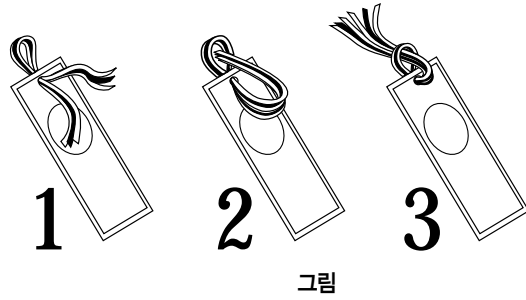
- 1 = 빨강
- 2 = 초록
- 3 = 갈색
- 4 = 노랑
- 5 = 주황
- 6 = 파랑

나의 복음 표준 서표

지시 사항: 친12쪽과 친13쪽을 두꺼운 종이에 붙인다.
책갈피를 잘라 내고, 점선을 따라 접은 후 뒷면을 펼칠하여 서로 붙인다. 책갈피 상단에 구멍을 내고 9인치(23cm) 길이의 리본끈을 구멍에 넣어 돌려서 묶는다.(그림 참조) 이 서표들은 여러분이 나의 복음 표준을 활용하여 매일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서표는 교회

표준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주: 잡지에서 이 부분을 잘라내기 싫으면 이 활동 부분을 인터넷 www.lds.org에서 복사하거나 손으로 옮겨 적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영어 사이트인 경우,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시고, 다른 언어로 보시려면, 전세계 지도가 나온 부분을 클릭하십시오.



그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으며 나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복음 표준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침례 성약을 기억하고 성신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는 올바른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음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에 대해 경직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들을 경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욕이나 거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내가 맡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성스럽고 깨끗하게 지키고, 나에게 해로운 것은 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단정한 옷차림을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 것만을 읽고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 음악만을 들겠습니다.
나는 훌륭한 친구들을 사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내가 맡은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으며
나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복음 표준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침례 성약을 기억하고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는 올바른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음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에 대해 정직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욕이나 거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암석일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내가 맡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성스럽고
깨끗하게 지키고, 나에게 해로운 것은
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단정한 옷차림을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 것만을 읽고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 음악만을 들겠습니다.
나는 훌륭한 친구들을 사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내가 맡은 일을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 표준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침례 성약을 기억하고
성신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는 올바른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음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에 대해 정직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욕이나 거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암석일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내가 맡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성스럽고
깨끗하게 지키고, 나에게 해로운 것은
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단정한 옷차림을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 것만을 읽고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릴 음악만을 들겠습니다.
나는 훌륭한 친구들을 사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내가 맡은 일을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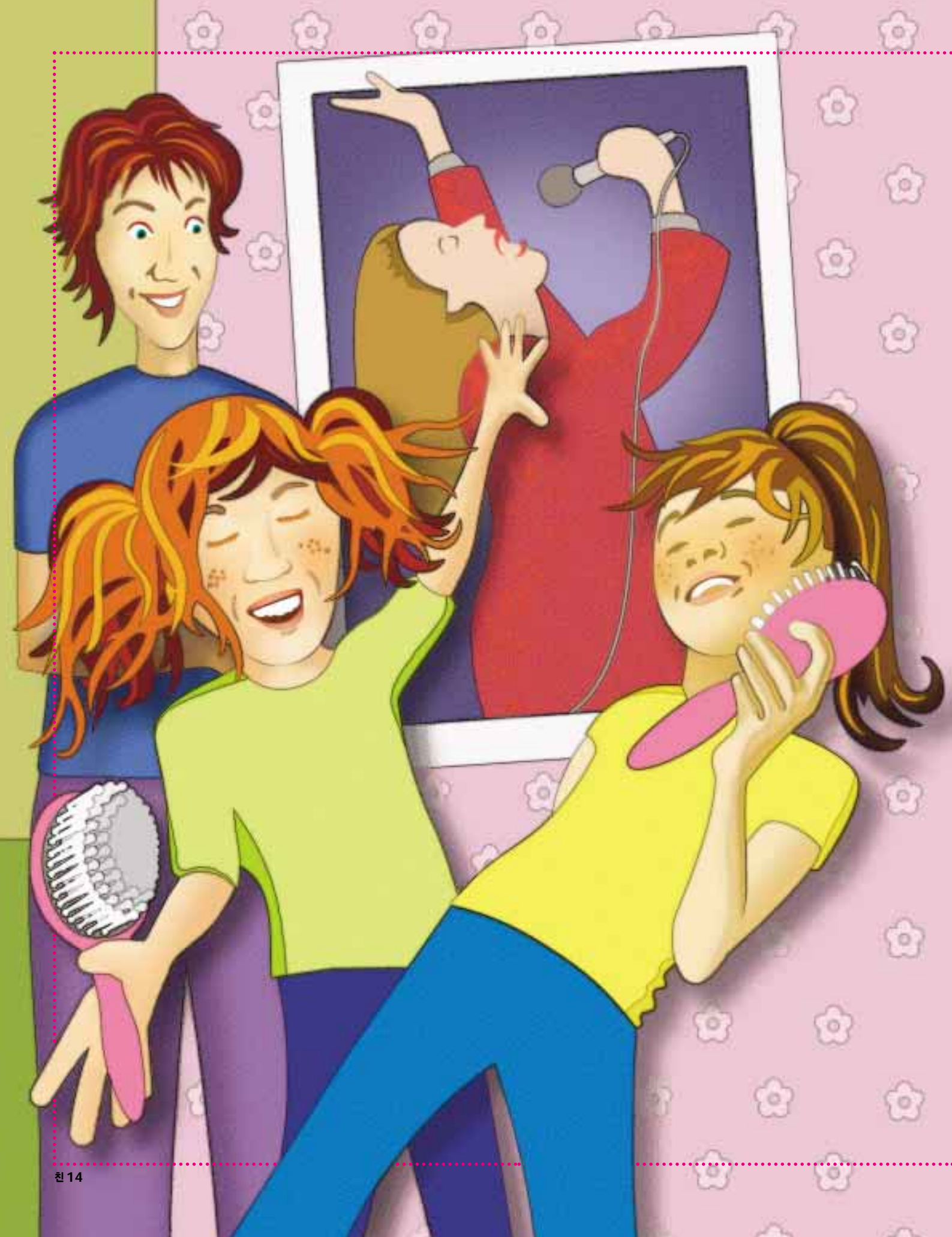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으며
나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명 용

“영은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야곱서 4:13)

김벌리 웹

교회 잡지
개인 경험에 근거함

“학 교 끝나고 우리 집으로 놀러 와. 새로운 앨리사 CD가 있거든.”하고 캐롤린이 말했다.(가수의 이름은 가명임)

저는 숨을 헐떡거리며 “알았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토요일에 제 생일 선물을 사 주시러 같이 가신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 새 CD를 당장이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앨리사는 제 영웅이랍니다. 저와 캐롤린은 앨리사처럼 행동했는데, 머리빔을 마이크인 양 잡고는 노래를 틀어 놓고 같이 따라 불렀죠. 가끔 어머니께서 소리를 낮추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앨리사 노래의 가사가 너무나도 좋았기에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내는 소음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앨리사는 신앙심이 깊었는데 한번은 잡지에서라도 그 내용을 읽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쏙살같이 달려갔고 방에서 제 숙제를 마쳤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환하게 저를 보고 웃음을 짓는 앨리사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마치고 길을 건너 캐롤린 집에 가자 캐롤린이 저에게 CD 표지를 건네 주면서 신난다는 듯이 “앨리사 참 예쁘지.”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분은 좀 이상했어요. 앨리사가 이번에는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앨리사의 표정이 뭐랄까 비웃는 거 같았어요. 게다가 그렇게 앨리사가 웃을 입을

사진은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앨리사의 옷이 좀 야한 것 같지 않니?”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캐롤린은 얼굴을 찌푸렸죠. “그래 맞아, 그런데 앨리사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런 옷이 괜찮을지도 몰라. 앨리사도 잘 모를 수 있구. 자 그냥 노래나 듣지 뭐. 이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야.” 캐롤린은 버튼을 눌러 음악을 틀었고 저는 CD 겹표지를 보며 수록된 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욕설이 없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 봐, 이 CD는 괜찮아.” 혼자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제 기분은 씁쓸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만화 영화를 보면서 선물을 사러 가기 위해 저를 태우러 오시는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광고가 나왔고, 아나운서가 말하길 “앨리사의 새로운 뮤직 비디오가 이 프로그램 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음악이 막 시작한 찰나에 어머니가 거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웃으시면서 “뭘 보고 있지?”라고 물으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앨리사의 새로운 뮤직 비디오예요.”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말하려고 했습니다.

화면에서 앨리사가 춤을 추는 광경을 보신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며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저는 우물쭈물하며 “웃을 그렇게 입는다고 해서 노래가 나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들은 앞으로의 인생이나 영원토록 내내 뒤따를 많은 것들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회장단,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01년, 2쪽).

건 아니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니?”

저는 뮤직 비디오 장면이 빨리 지나쳐 끝나길 바랐는데, 계속 나오는 거였어요. 할 수 없이 텔레비전을 꺼야 했습니다.

“가사는 전에 읽어 봤어요. 욕설은 없었다구요.”라고 저는 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꺼져서 어두워진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가 여전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은데. 애야, 나쁜 말만이 영을 몰아내는 건 아니란다.”

제 마음속 한편에서 어머니가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사가 전달하려는 걸 전 이해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성인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도 떠나신거구요.

터벅터벅 내 방으로 가서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엘리사의 포스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같이 웃어 주진 않았죠. 왜 제 영웅이 변했을까요?

밖에서 도착한 차의 경적이 들렸고, 저는 울컥 울음이 나오려는 걸 참으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생일을 맞은 내 손녀, 잘있었니?” 할머니께서 인사를 하시더니 차에 올라 탄 저에게 “자 어디로 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한주 내내 정해 둔 결정 사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생각 좀 하구요.”

“엘리사도 잘 모를 수 있구.”라고 엘리사에 대해 캐롤린이 했던 말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좋은 변명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옳은 걸 알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중요한 걸 깨닫자 한편에서 짓누르던 기분이 짝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건 바로 저는 하나님의 딸이고 그래서 다른 영웅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도 모르는 가수를 따를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맞아 내가 바로 엘리사의 영웅인 거야.”라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옷가게 가도 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란색 정장이 벌써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좋구 말구. 넌 파랑이 너무 잘 어울리지.”

저는 얼굴에 웃음을 띠었습니다. 영이 안에서 밝게 빛나 예쁘게 보였을 것입니다. 물론 유명한 팝송 가수보다 더 예뻐 보였을 것입니다. ●



친구들



교회소식

새로운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

제일 회장단은 지역 회장단의 임무 지명을 변경했다. 이 변경 사항은 2005년 8월 15일부터 유효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유럽 중앙 지역 회장의 임무를 마쳤다. 닐 엘 앤더슨 장로와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가 칠십인 회장단에 부름을 받았다.

지역 회장단의 모든 일원들은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칠십일 제일 정원회 또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속한다.

칠십인 회장단



엘 시 텅기
1. 북미 동
2. 북미 북동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3. 북미 남동



찰스 디디에이
4. 북미 남서



메릴 제이 베이트러
5. 유타 북
6.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7. 유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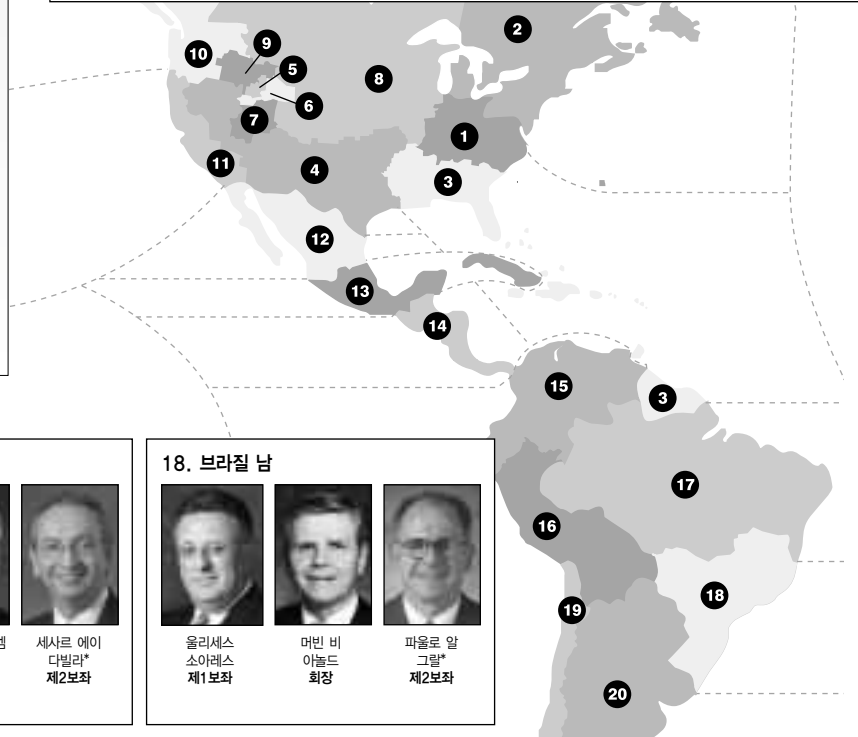
로버트 시 옥스
8. 북미 중앙



닐 엘 앤더슨
9. 아이더호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10. 북미 북서
11. 북미 서



12. 멕시코 북

시 스코트 그로우 제1보좌	로버트 제이 화이트 회장	호르헤 에이 로하스* 제2보좌

15. 남미 북

벤하민 데이 오요스 제1보좌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회장	세스르 에이 다빌라* 제2보좌

18. 브라질 남

울리세스 소아레스 제1보좌	머빈 비 아일워드 회장	파울로 알 그랄* 제2보좌

13. 멕시코 남

클라트 더블류 마스크 제1보좌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회장	마르코 에이 카르레라스* 제2보좌

16. 남미 서

제임스 엠 던 제1보좌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다 회장	윌리 에프 수수나기* 제2보좌

19. 칠레

칼 비 프랫 제1보좌	프란시스코 제이 베나스 회장	오스카르 더블류 차베스* 제2보좌

21. 유럽 서

케네스 존슨 제1보좌	제럴드 엔 런드 회장	데이비드 에스 박스타* 제2보좌

14. 중미

더블류 더블류 슘웨이 제1보좌	스펜서 브이 존스 회장	호세 이 보사* 제2보좌

17. 브라질 북

윌리 에프 곤잘레스 제1보좌	로버트 알 스투어 회장	페드로 제이 펜하* 제2보좌

20. 남미 남

린 지 로인스 제1보좌	엘 휘트니 클레이튼 회장	페르난도 디 오르데가* 제2보좌

22. 유럽 중앙

더블류 크레이그 조위크 제1보좌	브루스 시 하텐 회장	볼프강 에이치 뮐러 제2보좌

* 지역 칠십인



23. 유럽 동



웨인 에스 피터슨 제1보좌 데니스 비 노인슈만더 회장 폴 비 파이퍼 제2보좌

25. 아프리카 남동



윌리엄 더블류 팰리 제1보좌 크리스토퍼 꿀든 이세 회장 앨런 피 영* 제2보좌

27. 아시아 북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제1보좌 윌리엄 알 워커 회장 고원웅 제2보좌

29. 오스트레일리아



폴 케이 시브로스키 제1보좌 데이비드 알 스톤 회장 존 알 김슨* 제2보좌

24. 아프리카 서



로우얼 엠 스노우 제1보좌 셸던 에프 차일드 회장 아데시나 제이 울루카니* 제2보좌

26. 아시아



도널드 엘 홀스트롬 제1보좌 대릴 에이치 간 회장 디 앨런 앤더슨* 제2보좌

28. 필리핀



디 렉스 게렛 제1보좌 리처드 제이 메이너즈 회장 레머스 지 빌라레트* 제2보좌

30. 뉴질랜드/태평양 제도



에이치 브루스 스투키 제1보좌 스펜서 제이 콘디 회장 리처드 에이치 윈컬 제2보좌

칠십인 회장단 변경

닐 엘 앤더슨 장로와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가 2005년 8월 15일부터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앤더슨 장로와 래스벤드 장로는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와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의 후임으로 봉사하게 된다. 소렌슨 장로는 1998년 10월 이후로 칠십인 회장단에서 봉사해 왔으며, 그로버그 장로는 2004년 4월 이후로 회장단에서 봉사해 왔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가 현재 일곱 명의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새로운 이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브라질 남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앤더슨 장로는 최근 연차 대회에서 악을 분별하고 선을 택하는 것에 관해 말씀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은 지상에서 우리의 경험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우리가 운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고, 웃고, 재미있게 보내며, 춤추고, 노래하며, 많은 다른 경험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삶에서 훌륭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악 대신 선을 택하는 기회가 바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미소 짓는 눈 뒤에 숨은 악을 조심하라”,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46~47쪽)

앤더슨 장로는 1993년 4월에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이후로 그는 교회의 시청각부 집행 책임자 및 신권부 집행 책임자 보조, 유타 북, 유타 남, 북미 남서, 북미 북동, 유럽 서 지역 회장단에서 보좌로, 또한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했다.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앤더슨 장로는 프랑스 보르도 선교부의 회장 및 플로리다 탬파 스테이크의 회장으로 봉사했다. 젊은 시절에는 프랑스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앤더슨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교육을 마친 후에 그는 플로리다 탬파에 정착하여 광고, 부동산, 건강 관리 업체에 동업 관계 및 고위 임원으로 참여했다.

앤더슨 장로와 아내인 케이시 윌리엄스 앤더슨 자매는 네 명의 자녀와 아홉 명의 손자손녀를 두고 있다.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가 현재 일곱 명의 회장으로 구성



되어 있는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 부름 이전에 래스벤드 장로는 성전부의 집행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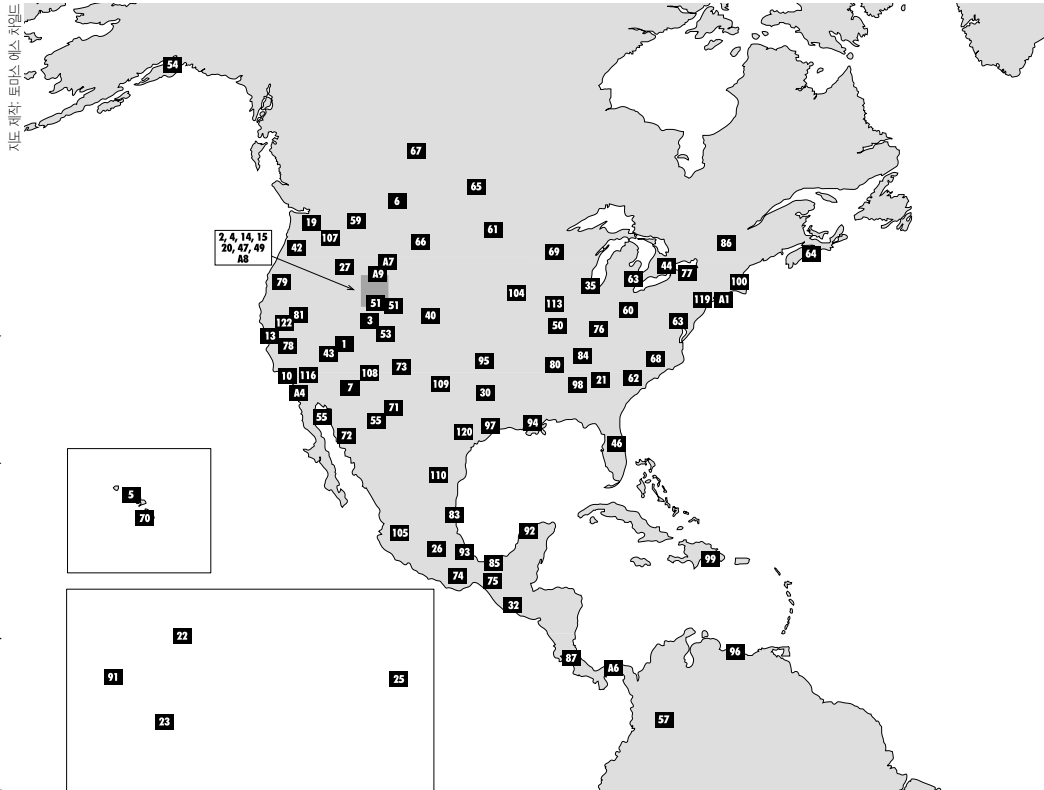
그는 2000년 4월 1일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시되었다. 래스벤드 장로는 유럽 중앙 지역 회장단에서 제1보좌로, 그리고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지역의 회장으로 봉사했다.

래스벤드 장로는 유타 대학교에 다녔다. 1995년에 유타 밸리 스테이트 대학은 그에게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그의 초기 경력에는 ZCMI에서 영업 담당 임원으로 재직할 이력이 포함되어 있다. 1976년에 그는 헌츠맨 컨테이너 회사에 영업 대표로 합류했으며, 1987년에는 헌츠맨 케미컬 회사의 사장 겸 최고 업무 책임자로 지명되었다.

뉴욕 주 뉴욕 북 선교부의 회장으로 봉사하기 위해 1996년에 헌츠맨 회사를 떠날 당시 그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이스턴 스테이트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 받은 후 처음 말씀한 연차 대회에서 래스벤드 장로는 구주



의 일대일 성역에 관해 간증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의 일생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저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압니다. 예수께서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또는 경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사람씩 알고 계십니다.” (“한 사람씩”,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36쪽)

래스번드 장로는 1951년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나 멜라니 트위첵 자매와 1973년에 결혼했다. 두 사람은 다섯 명의 자녀와 아홉 명의 손자손녀를 두고 있다. ■

헌납을 마치고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122개의 성전

텍사스 샌안토니오 성전,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성전이 최근에 헌납됨에 따라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성전의 총수는 이제 122개에 달하게 되었다.

1995년에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교회를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은 이래로 주님은 거의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인도하셨다. 지난 10년 동안 84개의 성전이 발표되거나 헌납되었으며, 이는 과거 118년 동안 헌납되었던 47개 성전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것이다.

힝클리 회장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과 이생의 목적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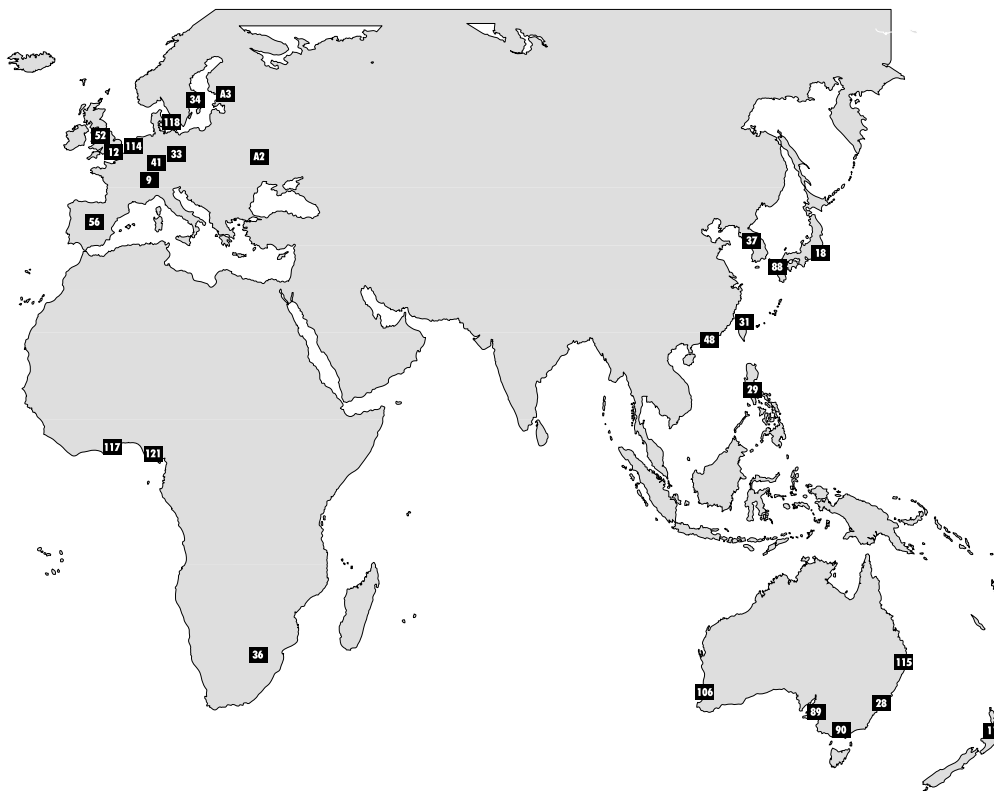
“이 교회가 지은 모든 성전은 사실상, 인간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 곧 우리가 거치는 이 필멸의 삶이라는 기간은 계속되는 발전의 일부이며 이곳에 삶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그곳에도 삶이 있다는 믿음을 나타내는 기념비입니다.”라고 그는 말씀했

다. “그것이 우리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는 구세주의 속죄를 통해 일어났으며 성전은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생과 다음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리아호나*, 2001년 5월호, 16쪽)

운영 중인 122개의 성전에는 원래의 건물이 2003년에 화재로 소실된 이후에 2005년 9월 4일에 재헌납된 사모아 아피아 성전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9개의 성전이 현재 건축 중에 있거나 이미 발표되었다.

전세계의 성전(지도 및 기호)

운영 중인 성전	헌납일	번호	성전명	헌납일
1 유타 세인트조지	1877년 4월 6일	11	뉴질랜드 해밀턴	1958년 4월 20일
2 유타 로간	1884년 5월 17일	12	영국 런던	1958년 9월 7일
3 유타 맨타이	1888년 5월 21일	13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4 솔트레이크	1893년 4월 6일			1964년 11월 19일
5 하와이 라이에	1919년 11월 27일	14	유타 옥든	1972년 1월 18일
6 앨버타 카드스톤	1923년 8월 26일	15	유타 프로보	1972년 2월 9일
7 애리조나 메사	1927년 10월 23일	16	워싱턴 디시	1974년 11월 19일
			8 아이다호 아이다호폴스	1945년 9월 23일
			9 스위스 베른	1955년 9월 11일
			10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1956년 3월 11일



척도를 고려하지 않은 지도

- 53 유타 몬티셀로 1998년 7월 26일
- 54 알래스카 앵커리지 1999년 1월 9일
- 55 멕시코 콜로니아 후아레스 치와와
1999년 3월 6일
- 56 스페인 마드리드 1999년 3월 19일
- 57 콜롬비아 보고타 1999년 4월 24일
- 58 에콰도르 과야킬 1999년 8월 1일
- 59 워싱턴 스포캔 1999년 8월 21일
- 60 오하이오 콜럼버스 1999년 9월 4일
- 61 노스다코타 비즈마크 1999년 9월 19일
- 62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
1999년 10월 16일
- 63 미시간 디트로이트 1999년 10월 23일
- 64 노바스코샤 핼리팩스 1999년 11월 14일
- 65 서스캐처원 리자이나 1999년 11월 14일
- 66 몬태나 빌링스 1999년 11월 20일
- 67 앨버타 에드먼턴 1999년 12월 11일
- 68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1999년 12월 18일
- 69 미네소타 세인트폴 2000년 1월 9일
- 70 하와이 코나 2000년 1월 23일
- 71 멕시코 후아레스 시우다드
2000년 2월 26일
- 72 멕시코 소노라 에르모시요
2000년 2월 27일
- 73 뉴멕시코 앨버커키 2000년 3월 5일
- 74 멕시코 오악사카 2000년 3월 11일
- 75 멕시코 텍스틀라 구티에레스
2000년 3월 12일
- 76 켄터키 루이빌 2000년 3월 19일
- 77 뉴욕 팔마이라 2000년 4월 6일
- 78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2000년 4월 9일
- 79 오리건 메드퍼드 2000년 4월 16일
- 80 테네시 멤피스 2000년 4월 23일
- 81 네바다 리노 2000년 4월 23일
- 82 볼리비아 코차밤바 2000년 4월 30일
- 83 멕시코 탐피코 2000년 5월 20일
- 84 테네시 내슈빌 2000년 5월 21일

- 17 브라질 상파울루 1978년 10월 30일
- 18 일본 동경 1980년 10월 27일
- 19 워싱턴 시애틀 1980년 11월 17일
- 20 유타 조던 리버 1981년 11월 16일
- 21 조지아 애틀랜타 1983년 6월 1일
- 22 사모아 아피아 1983년 8월 5일
- 23 통가 누쿠알로파 1983년 8월 9일
- 24 칠레 산티아고 1983년 9월 15일
- 25 타히티 파페에테 1983년 10월 27일
- 26 멕시코 멕시코시티 1983년 12월 2일
- 27 아이다호 보이시 1984년 5월 25일
- 28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1984년 9월 20일
- 29 필리핀 마닐라 1984년 9월 25일
- 30 텍사스 댈러스 1984년 10월 19일
- 31 타이완 타이페이 1984년 11월 17일
- 32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1984년 12월 14일
- 33 독일 프라이베르크 1985년 6월 29일
- 34 스웨덴 스톡홀름 1985년 7월 2일
- 35 일리노이 시카고 1985년 8월 9일
- 36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1985년 8월 24일
- 37 한국 서울 1985년 12월 14일
- 38 페루 리마 1986년 1월 10일
- 39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986년 1월 17일
- 40 콜로라도 덴버 1986년 10월 24일
- 41 독일 프랑크푸르트 1987년 8월 28일
- 42 오리건 포틀랜드 1989년 8월 19일
- 43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1989년 12월 16일
- 44 온타리오 토론토 1990년 8월 25일
- 45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1993년 4월 25일
- 46 플로리다 올랜도 1994년 10월 9일
- 47 유타 바운티풀 1995년 1월 8일
- 48 중국 홍콩 1996년 5월 26일
- 49 유타 마운트 팀파노고스
1996년 10월 13일
- 50 미주리 센트루이스 1997년 6월 1일
- 51 유타 버نال 1997년 11월 2일
- 52 영국 프레스턴 1998년 6월 7일

숫자로 본 성전의 발전

- 1877**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이 헌납된 해. 이 성전은 현재 운영 중인 성전 가운데서 가장 오래 되었다.
- 16** 100년 동안에 헌납된 성전 수로, 그 마지막은 1978년에 헌납된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이였다.
- 26** 1980년대 동안 헌납된 성전 수로, 1990년대에 헌납된 25개의 성전을 포함하여 2000년까지 어느 10년 보다도 가장 많은 성전이 헌납되었다.
- 37** 2000년에 헌납된 성전 수로, 어느 해보다도 가장 많은 성전이 헌납되었다.
- 4** 2000년 6월 11~18일까지 8일 동안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헌납한 성전 수로, 어느 기간 보다도 가장 많은 성전이 이 때 헌납되었다.
- 6** 1978년에 적어도 하나의 헌납된 성전이 있던 국가 수
- 40** 2005년에 적어도 하나의 헌납된 성전 또는 발표된 성전이 있는 국가 수
- 40** 솔트레이크 성전 건축에 걸렸던 해수.
- 4** 1980년 이후로 성전이 헌납되지 않았던 해들: 1982, 1988, 1991, 1992
- 29** 솔트레이크 성전과 하와이 라이에 성전의 헌납 사이의 연수. 현재 운영 중인 성전들의 헌납 간격 가운데서 이 기간이 가장 길다.
- 4** 소규모 성전 건축 프로그램이 발표된 이후로 같은 날에 두 개의 성전이 헌납된 회수
- 253,015** 교회에서 가장 넓은 성전인 솔트레이크 성전(별관 포함)의 평방 피트(23,500 m²)
- 280** 교회에서 가장 높은 성전인 워싱턴 디시 성전의 높이/피트(85m)

85	멕시코 비야에르모사	2000년 5월 21일	102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2000년 12월 17일	117	가나 아크라	2004년 1월 11일
86	퀘벡 몬트리올	2000년 6월 4일	103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2001년 3월 18일	118	덴마크 코펜하겐	2004년 5월 23일
87	코스타리카 산호세	2000년 6월 4일	104	네브래스카 윈터쿼터스	2001년 4월 22일	119	뉴욕 맨해튼	2004년 6월 13일
88	일본 후쿠오카	2000년 6월 11일	105	멕시코 과달라하라	2001년 4월 29일	120	텍사스 샌안토니오	2005년 5월 22일
89	오스테일리아 애들레이드	2000년 6월 15일	106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2001년 5월 20일	121	나이지리아 아바	2005년 8월 7일
90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2000년 6월 16일	107	워싱턴 컬럼비아 리버	2001년 11월 18일	122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2005년 8월 28일
91	피지 수바	2000년 6월 18일	108	애리조나 스노플레이크	2002년 3월 3일	발표되었거나 건축 중인 성전		
92	멕시코 메리다	2000년 7월 8일	109	텍사스 러벅	2002년 4월 21일	성전	발표일자	
93	멕시코 베라크루스	2000년 7월 9일	110	멕시코 몬테레이	2002년 4월 28일	A1	뉴욕 해리슨	1995년 9월 30일
94	루이지애나 배턴루지	2000년 7월 16일	111	브라질 캄피나스	2002년 5월 17일	A2	우크라이나 키예프	1998년 7월 20일
95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시티	2000년 7월 30일	112	파라과이 아순시온	2002년 5월 19일	A3	핀란드 헬싱키	2000년 4월 2일
96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2000년 8월 20일	113	일리노이 나부	2002년 6월 27일	A4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2001년 4월 21일
97	텍사스 휴스턴	2000년 8월 26일	114	네덜란드 헤이그	2002년 9월 8일	A5	브라질 쿠리티바	2002년 8월 23일
98	앨라배마 버밍햄	2000년 9월 3일	115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	2003년 6월 15일	A6	파나마 파나마시티	2002년 8월 23일
99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2000년 9월 17일	116	캘리포니아 레들랜즈	2003년 9월 14일	A7	아이다호 리क्स버그	2003년 12월 20일
100	매사추세츠 보스턴	2000년 10월 1일				A8	유타 드레이퍼	2004년 10월 2일
101	브라질 레시페	2000년 12월 15일				A9	아이다호 트윈폴스	2004년 10월 2일 ■

제7회 국제 미술 경연 대회 출품작을 접수 중인 박물관

월터 콜리, 교회 잡지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은 제7회 국제 미술 경연 대회의 출품작을 전문가 및 아마추어 후기성도 미술가들로부터 접수 중에 있다. 이번 경연 대회의 주제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다.

미술가들은 참가 신청서와 원작의 사진을 경연 대회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작품들만이 경연에 참가할 수 있다. 모든 참가 신청서는 2005년 10월 21일 이전에 도착되어야 한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www.lds.org에서 “Church History(교회 역사)”, “Museum of Church History and Art(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를 차례로 클릭한다. 참가 신청서는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한국어로 제공된다.

출품작은 2번의 심사를 거친다. 일차 심사에서 참가자들은 원작의 사진 또는 디지털 이미지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우편으로 통보를 할 예정이다. 일차 심사 통과자들은 2차 심사를 위해 원작을 교회 역사 및 미술 박물관에 제출해야 한다.

작품 제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관련된 개념, 아이디어, 또는 이야기. (1) 경전 및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나온 메시지 또는 이야기를 포함하여 후기 성도의 교리, 신앙, 가르침, (2) 교회 역사에 나오는 사건, 장소, 인물, (3) 후기 성도의 생활에의 복음의 가르침 및 가치관의 적용”

경연대회 관계자는 올해의 주제가 모든

과거의 경연 대회 출품작들에는 회화, 조각, 스케치, 판화, 텍스타일, 도자기, 세라믹스, 보석 공예, 목공예, 사진, 금속 공예가 망라되어 있었다.

2차 심사 통과자들의 작품은 2006년 3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박물관에서는 2차 심사 통과자들에게 작품의 매도를 전제로 소정의 시상을 하며, 상위 20명까지는 한 사람당 500달러의 부상이 주어지는 공로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시회가 끝나는 9월에는 방문자가 선정하는 상이 세 사람에게 각각 500달러와 함께 수여된다.

참가 신청서는 현재 www.lds.org/churchhistory/museum/competition에서 한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로 제공되고 있다. 러시아어, 일

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로 된 신청서도 곧 온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박물관은 매 삼년마다 국제 미술 경연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2003년 경연대회 동안 박물관은 171점 이상의 작품을 전시했다. 이 작품들을 www.lds.org/churchhistory/museum/competition에서 볼 수 있다. 1988년에 경연대회가 시작된 이후로 회원들은 심사를 위해 4,500점 이상의 작품들을 제출했다. ■



Alma Arise was part of the Sixth International Art Competition.

것을 포괄하도록 기획되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후기 성도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포함하도록 주제를 폭넓고 일반적으로 잡고 싶었습니다.”라고 수석 박물관장인 로버트 데이비스는 말했다. “전세계의 미술가들에게 최대한으로 경연대회의 문호를 개방하고 싶습니다.”

데이비스 형제는 경연 대회가 유망 미술가들을 발굴하는 데 탁월한 문호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2005년 10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10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어린이란의 4쪽과 5쪽에 있는 “나는 항상 옳은 일을 선택하겠습니다”를 참조한다.

1. 초등학교 1 그림 패킷에서 그림 1-38(공 놀이를 하는 어린이들)를 확대 복사한다. 8~10개 조각으로 자른다. “지혜의 말씀에 계시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에게 좋은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용모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등과 같이 단정함의 원리와 지혜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반영하는 질문들을 각 퍼즐 조각 뒷면에 하나씩 붙인다. 한 번에 하나씩 질문을 읽고,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한 어린이에게 퍼즐을 맞추게 한다. 퍼즐 그림에 있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모습과 옷차림을 가리킨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읽고(교리와 성약 89:18~21) 이들 원리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한다. 적절한 노래 또는 찬송가를 부른다.

2. 어린이들이 출애굽기 20장 8~11절을 읽고 토론하도록 돕는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안식일이 언제 복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는가?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어린이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에 관해 의견을 내게 한다. 음악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안식일에 적절한 활동을 제언하는 노래나 찬송가, 예를 들어 가족 역사, 가족, 경전 공부, 기도, 교회 참석 등에 관한 노래를 선정한다. 각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이들에게 안식일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귀기울이게 한다.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발전시켜, 가족 기록서 작성, 부모님에게 그들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부탁하기, 가족과 함께 교회에 참석하여 노래 부르기, 성찬이 집행되는 동안에 예수님에 관해 생각하기, 걸으면서 자연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 키우기, 하나의 새로운 식물 이름을 배우고 그림으로 그리기, 조부모에게 편지를 쓰거나, 전화 또는 방문하기, 인형극으로 경전 이야기 하기 등과 같은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각 어린이에게 종이 한 장을 주고 16개의 사각형으로 접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그룹에서 나온 안식일 활동들을 서너 개의 사각형에 적거나 그리게 한다. 크레파스, 매직, 종이를 나누어 주고, 각 어린이에게 “안식일 활동”을 위한 조그만 상자 또는 봉투를 장식하게 한다. 종이를 16조각으로 잘라 용기에 넣는다. 어린이들에게 용기를 집으로 가져가 가족의 도움을 받아 나머지 사각형을 채우게 한다. 매주마다 용기에서 사각형을 하나씩 꺼내 가족과 함께 그 활동을 함으로써 안식일을 존중할 수 있다.

3. 나의 복음 표준에서 두 항목이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에 관해 권고하고 있다. 무엇이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음 신앙개조

제 13조에 있는 다음 표현들을 단어장에 적는다. 유덕, 사랑, 듣기 좋음, 칭찬할 만함. 각 단어를 한자씩 오려서 각 단어를 한 봉투에 넣는다.(또는 각 단

어를 퍼즐 조각으로 나눈다.) 어린이들과 교사들을 네 그룹으로 나눈다. 그룹들에게 낱말들을 원상태로(또는 퍼즐을 맞추게) 하고, 맞춘 낱말을 봉투 위에 풀로 붙이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낱말들의 의미와 무엇이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지를 배우는 데 다음 활동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방을 네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한 낱말을 붙인 다음 네 그룹이 다음 각 활동을 돌아가면서 지나가게 한다. (1) 리아호나의 친구들에 있는 이야기를 읽는다.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책이나 이야기의 제목을 말하게 한다. (2) 친구들에 있는 게임이나 활동을 한다. (3) 적당한 초등학교 노래를 부른다. 간단한 리듬 악기나 율동을 곁들일 수 있다. (4) 집회소 도서실에서, 히클리 회장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 비디오(물품 번호 53331320)와 같은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짧은 비디오를 보여 준다. 어린이들을 모이게 하고, 활동에 대해 그리고 참여하는 동안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토론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읽거나, 노래하거나, 시청할 때 영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앙개조 제13조를 반복한다.



귀환 선교사 대회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과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한국 땅에서 봉사했던 귀환 선교부 회장과 선교사들을 초대했다. 이번 모임에는 특별히 선교사들의 가족들까지 함께 할 수 있어 의미가 더욱 컸다. 귀환 선교사들은 2005년 7월 27일~28일 양일간 각자의 봉사 지역에서 회원들과 함께 특별 노변의 모임을 가졌다. 귀환 선교사들은 간증 모임과 체육 대회, 회원들과의 식사 등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더했다.



신앙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안상헌 형제

지난 4월 6일 로스 에이치 콜 전임 선교부 회장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 50주년과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의 일환으로 7월에 있을 귀환 선교사 모임을 준비 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답은 “YES!”였으며 그 때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떻게 보다 많은 귀환 선교사들이 그 모임에 참석해서 그들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또한 그 후 일반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도 잠시, 드디어 7월 27일이 왔고 모임 장소인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에 귀환 선교사들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첫날 모임 내내 주님의 영이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주관 노변의 모임을 통해서 귀환 선교사들의 살아 있는 간증을

들었고, 전임 선교부 회장의 힘있는 말씀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여러 모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청주 스테이크 회장단과 상호 부조회 자매님들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날 모임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 왔습니다. 다음날 모임을 위해 준비 위원들이 모인 늦은 시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흥덕 와드가 현재 정전 중이며 건물로 들어오는 케이블이 타버렸기 때문에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언이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로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선교부 회장님께 알려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인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대답은 “신앙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일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 잠자리에 들며 조용히 기도했는데 편안한 느낌이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지역을 축복하기 위해 6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지난밤 상황에 대해 선교부 회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으셨습니다. 2층 활동실에서 개회를 했습니다. 선교부 회장님의 간단한 말씀 후 모두들 원을 그리며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록 전기는 없었지만 참석한 이들의 표정을 읽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들의 눈은 붉게 충혈 되어 있었으며 영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9시 모임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복구되지 않는다면 ...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한번 복잡하게 밀려 왔습니다. 바로 그때 실내가 환하게 밝아졌고 정태걸 스테이크 회장의 환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내게 시간을 물으셨습니다. “8시 45분입니다”, 대답을 하고는 아차 싶었습니다. 이번 모임을 위해 그분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던가? 만약 그분의 헌신적인 희생과 기도가 없었다면 ... 주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돕는다는 간증을 얻었습니다. 실로 작은 기적을 봤습니다. 정태걸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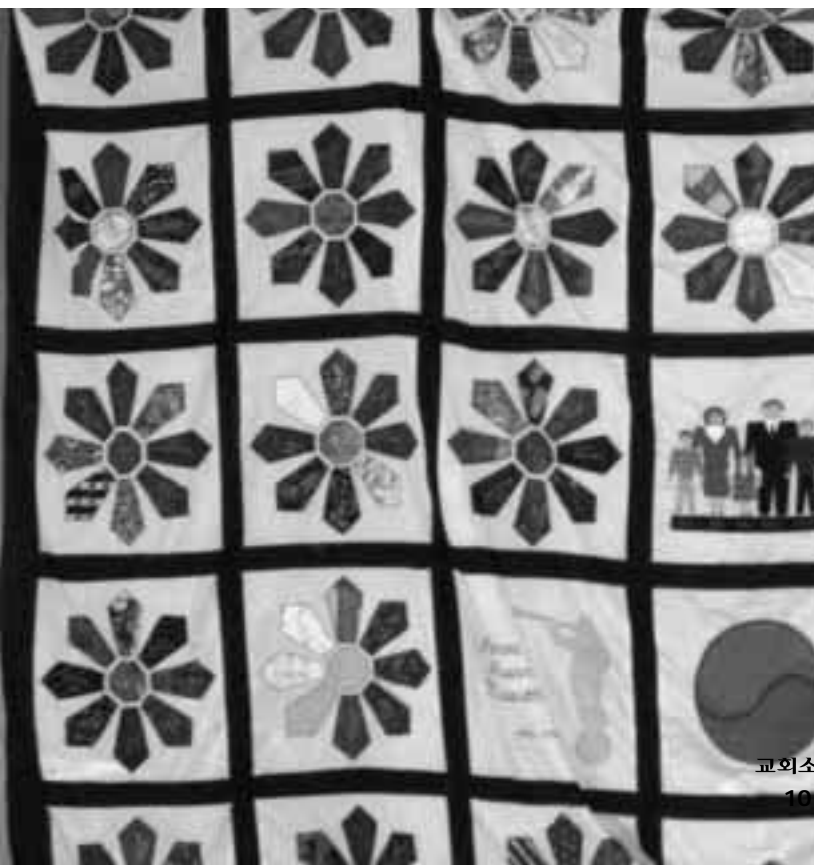
둘째 날 모임 역시 준비된 순서에 따라 진행됐으며 콜 전임 선교부 회장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틀간의 짧은 모임은 막을 내렸습니다. 폐회 친송 내내 모두들 울음을 참지 못했으며 콜 회장님 내외는 소리 내어 흐느끼셨습니다. 아마도 귀환 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복음 안에서 충실하게 생활하는 귀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이거나, 어쩌면 이 생에서 마지막이 될 귀환 선교사 모임을 마치며 가슴에 차 오르는 영의 충만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퀼트 안에 녹아져 있는 사람

서울 스테이크 흥재 와드 이영애 자매

선교 사업을 한지 10년이 지난 후 봉사했던 진주에 귀환 선교사 모임 참석차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허드 회장님과 자매님, 그리고 그리웠던 귀환 선교사들과 회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그 당시로 돌아가 진주 와드 예배당에서 선교사로 앉아 있는 흥분된 느낌이었습니다. 단지 지금은 무거운 선교사 가방대신 아이를 무릎에 안고 앉아있었습니다. 처음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와드 예배당 뒤편 무대에 커다랗게 커튼처럼 늘어놓은 아름다운 이불이 펼쳐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하던 날 귀환하는 모든 자매 선교사들은 손수건을, 장로들은 넥타이를 날카로운 가위로 싹둑 잘라 우리들의 흔적을 허드 자매님께 남기고 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월이 흐른 후 선교사로 봉사할 때 흘렸던 땀방울에 찌들었던 넥타이와 손수건으로 허드 자매님께서 하나의 아름다운 이불

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불로 만들어진 넥타이와 손수건 위에 새겨진 이름들을 보면서 그곳에 함께한 귀환 선교사들과 선교사로 봉사하던 추억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 많은 이름들을 둘러보면서 막상 내 이름을 찾으려고 하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드 자매님께서 내 손을 잡고 펼쳐진 퀼트에 데리고 가시면서 “이영애 자매님, 자매님 이름이 여기 있어요.”라고 하시면서 나의 이름이 새겨진 나의 손수건 조각을 찾아 주셨습니다. 자매님께서 모든 선교사들의 이름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자매님이 한뼘 한뼘 떠 가시면서 느끼셨을 느낌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내손으로 아름다운 이불을 만져보면서 선교사로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던 시절들이 스치고 지나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일에 회복된 이 복음이 참되기에 우리들은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였고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의밤

2005년 7월 30일 한국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한국 교회 헌남 50주년을 기념하며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축하하는 성대한 축제의 장이 열렸다. 이날 문화의 밤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은 지난 1년여간 준비한 공연을 마음껏 누렸으며 모임내내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공연이 진행 되는 내내 모든 성도들은 마음껏 기뻐하였으며, 지난 1년의 준비 과정이 떠오르는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지금도 그 감격의 순간은 잊혀지지 않은 채 우리의 가슴속에 깊게 자리잡고 있다.



과연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노니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 와드 설유선 자매



이번 문화의 밤은 세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성신을 느끼게 해 준 계기였습니다. 제가 문화의 밤 사회를 부탁 받은 것은 문화의 밤이 있기 약 한달 전이었습니다. 처음 사회 부탁을 받았을 때, 그것도 영어 사회를 부탁 받았을 때 워낙 영어 잘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만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주님의 도움을 기도로 간절히 구하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저희 스테이크는 문화의 밤을 위해 매주 성전을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는 스테이크 회장단의 권고에 따라 매주 성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명하실 때 이룰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문화의 밤 리허설 때 많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의 리허설을 거치게 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출연자들의 1년여 남짓의 땀과 시간과 노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내내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고1때 동생과 함께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회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 항상 가족 회원들을 보면서 저도 꼭 교회에서 가정을 이루어 가족이 함께 교회에 다니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데니스 김의 가족을 보았을 때 저에게는 큰 감동과 모범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 명의 침례로 인해 그의 5대손까지 내려온 후기 성도 가족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저의 후손들의 미래 모습을 보는 듯 뿌듯했습니다. 비록 나 한 사람은 작지만 나의 후손들이 교회 안에서 번창하고 봉사하며 축복 받을 수 있다는 강한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화의 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이루어 졌습니다. 실수할 것을 걱정하여 한껏 긴장해 있었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모두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번 문화의 밤을 통해서 나 하나의 힘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매우 사랑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천사들의 합창을 도우며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 김은주 자매

오랫동안 교회에서 합창을 많이 해왔지만, 전국적으로 500여 명에 이르는 교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대규모의 합창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되고 한편으로 과연 연습이 잘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마음이 되어야만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합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행사를 치르고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걱정도, 감동도, 기쁨도, 아쉬움도 어느 정도 잠잠해진 지금이지만 그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생생하게 그 모든 장면이 그려져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처음 악보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모든 곡들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지금, 많은 분들이 합창을 통해 기쁨을 얻고 감동을 받았다고 저는 감히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그 어떠한 전문 합창단에 견주어도 모자라지 않을 소망과 열정이 있었고, 그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연습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연습 기간이었기에 그 동안 소중한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음악을 칭찬해 주고 격려하고 서로의 노고에 감사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수고하는 데도 반주하는 저에게 늘 걱정과 감사로 더 많은 관심을 주셨습니다. 손도 못 댈 것 같던 대곡이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조화롭고 아름답게 울려 퍼질 때 그 짜릿함과 보람은 말로는 이루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멀리 있어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반가운 얼굴들을 합창단의 일원으로 만나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생활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복음에 대한 감사로 이뤄낸 일이었기에 더욱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대규모 인원의 연습이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일단 짧은 기간에 소화하기에는 곡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총지휘자께서 지역마다 직접 찾아다니셔야 했는데 혼자 하시기에 벅찬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나의 소리로 다듬기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기회는 몇 번 없었습니다. 연습을 해도 큰 변화를 못 느낄 때면 허무하기도 했고 음정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안식일 모임 후 피곤한 몸으로 연습에 가야할 때 때로 불평도 했었고, 휴가를 내고 리허설에 가야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리허설에서 공연장에 적응하고 음향 시설을 조절하는 도중 서로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어도 더 이상 연습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한 아쉬움과 기다림 속에 문화의 밤은 시작되었고 흥분과 함께 그 순간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지휘자의 사인을 기다리는 건반 위의 제 손끝은 긴장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와의 전주에 이어 합창이 공연장 가득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반주를 하고 있던 제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과 모범이 없었더라면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일이

었습니다. 모두가 정말 수고하셨고 그만큼 잊지 못할 훌륭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 또 그 음악을 느낄 수 있는 귀, 그리고 봉사 할 수 있는 재능을 선물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 있어 한번 뿐일 듯한 이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여 추억을 만들고,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봉사하는 가운데 발전시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 된 강강술래

영동 스테이크 이천 지부 김현정 자매



지난해 겨울, 저는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 및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 기념 문화행사에서 할 강강술래 안무 지도를 부탁 받았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게는 너무나 뜻밖의 부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의 교회 부름을 통해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주님은 부름을 통해

저를 발전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기꺼이 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과 전공서적 도움으로 안무와 음악을 서너 차례 편집한 후에서야 강강술래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영동, 수원, 안양 스테이크 20대 초반부터 70대 후반의 상호부조회 자매님들께서 뜻 깊은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60대 이후의 자매님들은 굉장히 동적인 강강술래의 안무를 소화해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연로하신 자매님들은 젊은 자매님들보다 더 의욕적이고 참여하고자 하시는 열망이 더 크셨습니다. 강강술래는 단 한사람의 전문가도 없는 순수 교회 회원만으로 구성되었는데 전문가의 흥내를 내기 위해 누구는 빼고 누구는 참가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성도는 조금 떨어져도 참여하는데 의의를 갖고, 춤사위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코자 연령이나 출석수에 관계치 않고 기회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런 저의 방침으로 하여 8개월의 연습 기간동안 인원수는 단 하루도 같은 적이 없었고 짝은 끊임없이 바뀌어 최종 리허설까지도 인원수가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로 판이하게 달랐던 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자매님들께서 연습 기간 동안 어떻게 동화되는지 보았고, 사공이 많은 배 같았던 강강술래도 결코 항로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강술래에 참여하신 자매님들께서 성공적으로 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한 예로 문화의 밤 전날 리허설은 성공적이었는데 당일 리허설은 전혀 박자도 동선도 맞지 않아 당혹스러웠습니다. 연습을 시작한 이래 최대 인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선의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 버선을 신기로 했는데 대화장 바닥은 너무 미끄러워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자매님의 기지로

버선 바닥에 작은 구멍을 내면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자매님은 새 버선바닥에 구멍을 기껴이 내셨습니다. 전 강강술래 공연을 마치고 퇴장하시는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의 환한 얼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환한 웃음은 아이와 같은 해맑음이었습니다. 8개월간의 여정으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부채를 들고

대전 스테이크 공주 와드 여선영 자매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 기념 문화의 밤 행사를 돌이켜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처음에 인원이 모자라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참여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큰 딸 예지와 동서인 오양주 자매, 조카인 이상지, 의영 자매와 함께 부채춤 연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령 차이, 생소한 고전무용의 동작들, 때때로 지도 선생님의 엄한 꾸중을 울기도 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청녀들, 이 모든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낙오자 없이 열심히 연습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청녀들이 참으로 대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신앙과 살아 계신 선지자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예지는 부채 끝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살아 계신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과 그분께 한국의 아름다운 부채춤을 보여드릴으로써 나와 예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신앙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저희가 대전으로 부채춤 준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면 남편은 아들 상준이와 막내딸 예은이를 돌보느라 애를 써야 했습니다. 또한 일요일에는 남편이 대전과 전주로 합창연습을 위해 여행하는 동안 제가 아이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는 주말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7개월이 넘

는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희생이 없이는 아무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또한 평생에 한번뿐일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더욱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예지가 처음에는 학교의 합창 연습이나 친구들의 생일파티 초대와 같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부채춤 연습 참여에 대해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부채춤을 추어야 하는 지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면서 매주 토요일 학교가 끝난 후 연습에 참여하기 위해 대전으로 함께 향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있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던 부채춤 연습에 잘 참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문화의 밤 행사를 마친 후 저에게 주어진 축복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40여명의 자매들과 나누었던 우정과 사랑,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의 성도들을 보면서 느꼈던 강한 유대감과 일체감, 그들의 희생과 신앙, 일요 모임에서 살아 계신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을 뵈었을 때 마음속으로 느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사랑,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수개월간의 어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딸과 함께 했던 이 훌륭한 경험은 가문의 영광으로 가족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3대가 참여한 농악 놀이

서울 동 스테이크 상계 와드 황인상 형제

덩 터쿱 덩 터쿱

이 소리는 저희 가족이 함께 모일 때면 언제나 집안에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아버지와 제가 시작했던 농악을 이제는 저희 가족 모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 문화의 밤 행사에서 저희 가족은 함께 공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함께 모여 농



악을 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문화의 밤 행사를 일년 넘게 준비하면서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은 이번 행사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목표를 가지고 매일 아침 가족 경전 읽기와 가족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습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가족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신앙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론 어렵게 느껴 지기도 했습니다. 두 살배기 아들 일하를 가르치는 것이 저희 가족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하의 맑은 역할은 무동인데 자꾸 아래로 내려오려고 해서 시간만 나면 목마 태우고 연습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만큼 행복했던 시간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의 밤에 참여했다는 것은 저희 가족에게 커다란 자부심이고 큰 기쁨입니다. 자녀들과 가족 모두 즐거워 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은 소중한 지상의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선지자 엘마가 비유했던 '신앙의 씨앗'처럼 문화의 밤 행사는 저희 어린 세 자녀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한국 땅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처럼 커다란 나무가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문화의 밤을 준비하고 공연을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느낄 수 있었으며 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할 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간증을 얻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두 남매의 기차 여행

동대문 스테이크 춘천 와드 안인숙 자매

저는 자녀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늘 말하곤 합니다. 이번에 한국 교회 50주년 기념 행사로 문화의 밤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청남 청년들이 그 모임에서 북춤과 화관무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 송이는 화관무를 아들 정욱이는 북춤을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동계 청소년 대회를 시작으로 일정이 시작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청소년 대회 출발 하루 전까지도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득과 권고 여러가지 회유책을 내어 보았지만 별 효과는 거두지 못한채 시간은 흘렀고 밤 10시가 다 되어서 어쩔수 없이 못간다고 이야기를 전화로 하려는 순간, 작은 아이가 “누나가 가면 갈게요!” 큰 아이가 “엄마 갈래요!”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기쁨은 이

루 말할 수 없었고 전화를 끊자마자 짐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청소년 대회를 끝마치고 와서는 작은 아이가 “엄마 힘들어요 괜히 했어요.” 큰 아이도 “엄마 재미 없어요.”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잘 설명하고 힘을 주며 처음 한 두번은 같이 따라 서울로 가곤 했습니다. 그 후에 두 아이는 매주 토요일 학교가 끝나면 바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다시 춘천으로 돌아오는 길은 아이들에게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작은 아이는 체구가 작아 복을 메고 하는 것이 힘이 들어 때때로 파스를 붙여야 했습니다. 힘에 겨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괜히 나의 욕심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게 아닌가 하여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원했고 신앙에 싹이 트길 바라며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연습 일정 중에 좀 힘이 들었던 6월 6일 경희대 캠퍼스에서의 일정과 7월 25일~26일 양일간의 연습 그리고 29일 연습과 30일 최종 리허설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스테이크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죄송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문화의 밤 순서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땀방울을 보았고, 신앙을 보았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통해서 힐라맨의 이천 용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서 배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순종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훗날 이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자신과 그들의 부모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아이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열의도 없고 마치 못해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정에 참석하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너무나 큰 발전에 놀랐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경전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문화의 밤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도하신 지도자님들과 선생님들, 고문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 그분들의 땀과 노력과 인내로 훌륭히 마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온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 권경민 형제

8개월 간의 꿈같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꿈에서 떨 깬 기분



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있을 것 같고 복과 복채를 들고 아이들과 땀 흘리며 지금도 복음을 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공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욱 더 뜨거운 여름 햇볕 속에서 더 많은 열정들을 불살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느끼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제 자신이 나약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함께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우리를 믿고 따라주는 청소년들이 있었기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또한 두려움 보단 주님을 더 믿고 따르면 그 분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린 큰 파도 하나를 넘어 모두가 기뻐할 순간이 올 것이라 생각했고 우린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믿었고 따랐고 의지했으며, 그리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힘있는 복음의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명 한명의 팔이 되었고 동작이 되었고 얼굴에선 그 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 온 청소년 회장단과 조희철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회장단들의 순종과 조희철 감독님의 모범은 지도자를 지지하는 모습과 지도자의 모범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 있던지 그러한 모습은 제가 있을 그곳에서 저의 또 다른 표준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해 온 시간을 통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오셨고 그분의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간증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었던 2005년의 여름을, 뜨거웠던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가족의 아빠가 되어

인천 스테이크 용현 와드 백봉욱 형제

50주년 행사의 한 부분으로 뮤지컬이 기획되고 오디션을 한다는 소식에 가슴 설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0대부터 20대를 아우르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형제 자매들과 보낸 이 시간이 돌아보면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엔 조금은 거만한 생각으로 시작했던 50주년 준비가 모든 일정이 끝난 지금에는 겸손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도록 도와준 아주 고마운 시간이었으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해준 귀중한 시간이었습

니다. 다른 단원들의 열성적인 희생과 노력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일로 힘겨워 그만두고자 했던 제가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모임을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단원들을 통해 알게 된 신권에 관한 간증과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던 것이 가장 감사하고 귀중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저 내가 맡은 역할만 잘하자 했던 저에게 단원들이 보여준 관심과 지지는 저에게 모임에 참여하는 자세를 바꾸도록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제 스스로가 뮤지컬 팀의 '아빠'가 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모임에 도착하면 백 형제란 호칭보다 '아빠'라는 호칭으로 반겨주던 단원들이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점점 공연의 날이 다가오고 많은 단원들이 힘들어 지쳐갈 때 저에게는 모든 단원들이 마치 저의 자녀들인 것처럼 안타깝고 도움을 주고픈 마음이 가득 했습니다. 오로지 자신과 가족밖에 모르던 제가 일주일의 대부분을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저를 보며 신기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저에게 충격이며 감동으로 다가온 사실은 이 모든 관심과 사랑이 단지 배역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지닌 신권을 지지하며 마치 한 집안의 신권을 지닌 가장처럼 이 모임의 신권 형제로서 지지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던 날 모든 단원들이 모여 우리들의 공연이 잘 전달 되도록 기도하고자 했던 그 자리에서 남경희 자매님이 제가 뮤지컬 팀의 대신권 소유자임을 강조하며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을 때 경건함으로 준비해 준 모든 단원들의 모습과 자신들이 맡은 바 소임을 잘 하도록 신권 축복을 요청하는 단원들로부터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 주가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으며 올바른 권능의 행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던지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시간과 재능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며 가치 있는 희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 준 모든 사랑하는 단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지닌 신권과 복음에 대한 간증을 더욱 강화하도록 도와준 모든 단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시간을 보내며 기억을 공유하고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서 가족이었던 모든 뮤지컬 단원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영동 스테이크
오론 와드 감독: 최종찬(전임: 윤형식)
분당 와드 감독: 이강배(전임: 송재근)
하남 지부 지부 회장: 최홍기(전임: 김유석)
오론 와드 감독: 김정기(전임: 최종찬)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감독: 최종산(전임: 정채영)

지역 단 신

자세한 사항은 www.ldschurch.or.kr 참조

- 강서 스테이크
이성열 형제의 간증
-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일일 청소년 대회(2005년 8월 19일)
영어 마을(2005년 8월 27일)
- 안양 스테이크
청소년 체육 대회(2005년 8월 20일)
- 제주 지방부
청소년 표준의 밤(2005년 7월 16일)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276기 (한국 16명, 해외 1명)



강봉철
부산 서 지방부
구포 지부
서울 서 선교부



권준성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 와드
대전 선교부



길의현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
대전 선교부



안의룡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부산 선교부



김미선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대전 선교부



안현정
인천 스테이크
용현 와드
대전 선교부



김태숙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
대전 선교부



정국희
부산 서 지방부
김해 지부
서울 서 선교부



김해영
수원 스테이크
평택 와드
부산 선교부



정성은
마산 스테이크
창원 와드
서울 선교부



김현승
마산 스테이크
풍호 와드
서울 선교부



정영숙
광주 스테이크
농성 와드
부산 선교부



문수현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대전 선교부



차지아
수원 스테이크
안성 지부
부산 선교부



민기은
강서 스테이크
김포 와드
대전 선교부



황미진
광주 스테이크
총장 와드
솔트레이크
템플 스퀘어 선교부



백경화
서울 스테이크
청운 와드
대전 선교부